



크리플 'FunXingQ' 인지증 예방사업 ▶7면

인지 케어 전문기업 주식회사 크리플 (CREPLE)의 SaaS 기반 인지케어 구독서비스 'FunXingQ(펀싱큐)'가 일본 후쿠이현 에치젠시가 추진하는 지역 인지증 예방사업의 실제 현장에 적용돼 운영되고 있다.



특별인터뷰-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10면

2년 전 보궐선거 때 전국적인 관심 속에서 부산 금정구청장에 당선된 후 지난 6.3선거 때 당당하게 재임성한 민선 9기 윤일현 구청장을 본지에서 만났다. 세밀하게 행정을 행하는 세부사 출신 윤일현 구청장은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을...



목포중앙고, 목포를 영화처럼 담다 ▶13면

전남광주 목포중앙고등학교(교장 이경현) 방송 영상과 학생들이 목포시 교육발전특구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홍보영상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9월 4일 밝혔다.

“교육재정 근간 흔드는 교부금법·교육세 개편 반대”

김대중 교육감, 전국 교육감들과 국회서 공동 기자회견... “전면 재검토”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개편과 관련, 강한 우려를 표하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8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는 16개 시도교육감 공동성명 발표에 뜻을 함께했다.

김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개편안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조치”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 무너지는 정부 신뢰, 민주적 절차 실종 - 교육청은 “정부가 반세기 넘게 유지되어 온 법률을 경제 논리만으로 개정할 수 있다면, 지금 개편안에 담긴 교부금 보전 조항조차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도가 언제든 교육청에 불리한 방향으로 다시 개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이번 개편은 단순한 산정방식 변경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지방교육재정의 신뢰 자체를 뒤흔드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교육청은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은 물론 학교 현장과 미래교육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정부는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의 없



이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제도 개편을 강행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 “학생 줄면 예산도 준다”는 경제논리가 문제 - 교육청은 개편안의 근저에 깔린 기본 인식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학교 운영비까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닌 게 교육 현장의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이런 현실을 도외시한 채 학령인구 감소를 개편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등 새롭게 확대되는 교육 투자 수요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 법령 곳곳 ‘문제 투성’ - 내용 면에서도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게 교육청의 주장이다.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령

안 교부금 차액 정산에 관한 적용례를 2026년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시행 전 상황까지 소급해 불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교부금 증가폭이 축소되는 상황에서도 교육부가 사업 목적과 금액을 직접 결정하는 특별교부금의 효용은 그대로 유지되어, 결국 “교육감의 자율적 재정부운 권한만 축소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가 함께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서도, 교육·인재계정의 용도에 유·초·중등교육이 명시되지 않아 정작 교육재정의 근간인 유·초·중등 부문이 소외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 “늘었다는 교부금, 뜯어보면 인건비뿐” ... 사실상 삭감 - 정부는 개편 이후에도 교부금 총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이 수치가 실질적인 재정 확대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당장 2027년 교부금 보더라도 76조 4,000억원에

서 78조 9,000억원으로 2조 5,000억원 늘어나지만, 이는 인건비 상승분을 보전하는 데 그치는 수준이다. 여기에 지자체가 교육청에 이전하는 법정전입금 중 담배소비세분이 2026년 일몰 예정됨에 따라 시·도 교육청 재원이 1조 6,000억원 감소할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2026년 대비 감액되는 규모라는 게 교육청의 분석이다. 교육청은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고 그 재원으로 고등·평생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등교육은 별도의 재원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 철회와 함께, 독립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 국회·전국 354개 단체와 연대 확대 - 교육청은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20.79%)의 유지를 요구하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관련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하는 만큼, 국회 입법 과정이 사실상 마지막 저지선”이라며 “지역구 국회의원, 국회 교육위원회와의 접촉면을 넓혀 개편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법안 심사 단계에서부터 저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와의 연대와 공동 대응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장상석 기자 2580news@daum.net

김희정 의원, 학교 이전·통합 뒤 남은 부지 활용 길 연다

미활용 학교시설 복합시설 활용법 대표발의... 지난 11년간 전국 102곳 발생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 부산 연례)은 8월 24일 학교 통폐합이나 이전 재배치로 더 이상 학교로 사용되지 않는 기존 학교시설도 학교복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복합시설을 ‘학교 또는 폐교’에 설치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체육·주거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간 통폐합이나 이전 재배치로 더 이상 학교로 사용되지 않는 기존 학교시설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령상 명시적인 표현이 없어 현장에서 해석상 혼선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의 미활용 학교시설은 102곳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통폐합과 이전



재배치 등에 따른 유류 학교시설이 전국적으로 지속 발생하는 만큼, 이들 시설을 지역에 필요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문제는 현행법에 미활용 학교시설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현재는 교육부가 법제처 법적자문을 통해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희정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통폐합, 도시개발에 따른 신설대체이전 등으로 학교로 사용되지 않게 된 기존 학교시설과 부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활용 학교시설을 교육·문화·복지 등 지역에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 유류 학교시설의 활용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황요규 기자 hog@

인천송명초, 학생 정서적 안정 도모

연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정서·행동 지원 업무협약

인천송명초등학교(교장 최은미)는 지난 8월 21일 인천연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교육적 성장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생활지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와 지역 전문기관이 협력

해 학생의 상황에 맞는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전문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위기 학생에 대한 다각적 자문과 지속적인 상담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정서 지원 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양 기관은 △정서·행동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전문 상담 및

진단·치료 프로그램 연계 △개별 학생교육지원 및 교육적 복귀 과정에서의 전문가 자문 및 소견 제공 등에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최은미 교장은 “이번 협약은 학교의 교육적 역할과 지역 전문기관의 상담 역량을 연결해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합한 도움을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용섭 기자 ays@

"학생을 위한 공간, 교육을 위한 가치를 만드는 선택"

월드퍼니처가 함께합니다

ONLY WORLD BENEFIT

BENEFIT 01	BENEFIT 02	BENEFIT 03
연계고용부담금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받는 제도	총액 계약 조달청과 수의사입하하여 계약을 체결 하는 제도	수의 계약 금액에 상관없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도

주식회사 월드퍼니처 | 1588-3886 | 부산시 강서구 녹산화전로 23

WORLD FURNITURE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교육부, 내년 예산안 117조 5962억 원 편성

전년보다 11조 2355억 원 증가… 유보통합·지역대학·AI 인재양성 집중

교육부가 2027년도 예산안으로 117조 5962억 원을 편성했다. 전년 본예산 106조 3607억 원보다 11조 2355억 원, 10.6% 증가한 규모다.

교육부(장관 최고진)는 9월 1일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발표하고 유보통합과 지역·청년 지원, 첨단분야 및 인공지능(AI) 미래인재 양성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고 밝혔다.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에는 89조 7354억 원이 편성됐다. 전년 본예산보다 7조 6189억 원 증가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8조 8718억 원으로 확대됐다. 전년보다 7조 2031억 원 증가한 규모다. 교육부는 국가 경제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할 계획이다.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에는 9조 9691억 원이 투입된다.

유보통합 관련 예산은 1조 1698억 원으로 확대된다. 단계적 유아무상교육·보육 지원에는 6429억 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도 기존 4~5세에서 3세 반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유아 단계의 무상교육·보

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교사 대 아동비를 개선 예산은 5269억 원으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은 기존 0세 반에서 1세 반까지 확대된다.

영유아보육료는 3조 7959억 원으로 편성됐다. 만 0~2세 영아의 보육료 지원단가도 3% 인상된다.

고등교육 분야에는 18조 9661억 원이 편성됐다. 전년 본예산보다 2조 9269억 원 증가했다.

지역대학과 청년 지원에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거점국립대 혁신사업에는 7944억 원이 편성된다. 전년보다 1457억 원 늘어난 규모다.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도 신설된다. 총 3280억 원을 투입해 지방국립대에 진학하는 신입생 6만 명의 등록금을 지원하고 지방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지방국립대의 중장기적인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6910억 원 규모의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이 신설된다. 지원 대상은 21개 지방국립대다.

대학생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에는

4650억 원이 편성된다.

대학생 6만 명의 현장실습 참여를 지원하고 실습지원비와 실습참여비용, 현장멘토링 등을 제공한 다.

대학 창업교육 기반 고도화 사업에도 470억 원이 신규 편성된다. 대학 창업교육 역량 강화와 청년창업기숙사 확충, 창업 우수장학금 등을 지원한다.

첨단산업과 이공계, 인공지능(AI) 미래인재 양성에는 3조 2630억 원이 투입된다.

첨단분야 인재양성 예산은 6646억 원으로 확대된다. 첨단산업 부트캠프와 청년도약 부트캠프 등을 확대하고 대학생 문제해결 프로젝트도 새롭게 추진한다.

사립대 이공계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는 6000억 원이 신규 편성된다.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실험·실습 및 연구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인 학습자의 직무 전환과 경력 재설계를 지원하는 '인공지능(AI) 재도약대학' 사업도 신설된다. 2070억 원을 투입해 40개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2년 내외의 AI 융복합 집중교육을 제공할 예정이 다.

대학생의 AI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마련된다.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 사업에 200억 원이 편성된다. 대학 컨소시엄을 구성해 학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계약을 지원한다.

기초학문 연구 지원에는 1조 7714억 원이 편성된다. 이공학 분야 연구 기반을 강화하고 인문사회 분야 연구 지원도 확대한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미래대응기금'의 신설이다.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는 총 4조 9315억 원이 편성됐다.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청년의 지역 정주와 AI 미래인재 양성에 재원을 집중한다.

교육부는 이번 예산안이 저출생과 지역소멸, AI 대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7년도 예산안에 국가가 교육과 미래인재양성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담았으며 영유아기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병선 기자 kbs@

社 說

‘지방 국립대 등록금 무료화’, 근본적 체질 개선 없는 선심성 정책은 한계 있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을 시작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방 국립대 30곳의 신입생 6만 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인구 유입과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의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의 구조적 약점을 따져보면, 과연 이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점은 '등록금 0원'이라는 과격적인 조건에도 수험생들의 반응이 냉담하다는 사실이다. 조사에 따르면 수험생의 64%가 등록금 혜택이 있더라도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청년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몰리는 수도권 대학으로 몰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히 등록금이 싸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 인프라, 그리고 졸업 후 미래 비전이다. 지방 대학을 졸업해도 일할 만한 지역 기업이나 산업 생태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등록금을 지원한다 한들 일시적인 임시방편에 그칠 뿐이다.

또한, 지역 대학 생태계를 교란하고 국립 대 사립 간의 새로운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점도 중대한 문제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지방 사립대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같은 지방에서 공부하는 학생임에도 국립대라는 이유만으로 전액 지원을 받는 것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재정난과 신입생 미달에 시달리는 지방 사립대의 고사를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 교육부가 지역인재장학금 확대 등 대책을 내놓았으나, 근본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인 만큼 효율성 검증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2,100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수천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지만, 대학 자체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나 글로벌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눈먼 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단순한 대학 진학을 유지나 선심성 피주기식 재정 투입은 국가 재정 부담만 늘릴 뿐이다.

정부는 재정을 쏟아붓는 방식의 단기적 처방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방대를 살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역 산업체와 연계된 실질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먼저다.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료 대학 수업이 아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제대로 된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

윤지영 부산시의원 “시민 생명과 직결된 물 관리 나서야”

낙동강 녹조 상시화·먹는 물 안전 문제 부산시에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장 윤지영 의원이 부산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낙동강 식수원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윤지영 의원은 지난 9월 1일 열린 부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부산시장은 어디에 있는가?'를 주제로 발언하고, 낙동강 녹조 문제와 부산시의 물 관리 정책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나타냈다.

윤 의원은 특히 낙동강 녹조가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물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민생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산의 식수원이 사실상 낙동강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와 수온 상승 등으로 녹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보다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단



순히 녹조가 발생한 이후 정수 과정에서 대응하는 방식만으로는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부산시가 낙동강 수질과 식수원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안전한 먹는 물은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시장이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민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산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또한, 낙동강 수질 개선과 안정

적인 식수원 확보를 위해 부산시가 정부와 관계기관에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산의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지영 의원의 이번 발언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녹조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의 식수원 안전 문제를 다시 한번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윤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시정은 없다”는 취지로 부산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물을 확보하는 것이 부산시정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지영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윤 의원의 발언 제목은 부산시의회 공식 인터넷방송에도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부산시장은 어디에 있는가?’로 기록돼 있다.

이정현 기자 ljh@

전남광주교육청, 제16회 전국상업경진대회서 금 10개

12개 경진·4개 경연서 은 22·동 37개 등 69개 메달 ‘씩쓸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통합 후 처음으로 참가한 '제16회 전국상업경진대회'에서 금메달 10개 등 69개 메달을

을씩쓸이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대회는 교육부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공동 주최,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주관으로 지난 8

교육연합신문
발행·편집인 한승균
우 135-955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3, 306호(충무로 4가)
구독문의/대외번호 02-541-2000 서울본부 1899-0954
인천본부 032-429-1000 충북지사 043-292-0779 영남본부 054-273-3336
대전지사 1666-0536 울산지사 052-276-0904 호남본부 0505-629-3366
전북지사 063-226-0119 부산지사 051-711-1444 제주지사 1522-1160
2009년 1월 22일 등록번호 서울 다 10489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사제보: news@eduyonhap.com



특허청장이 추천하는 우선구매대상 “우수발명품”

에듀테크 비즈니스모델 공모전 “최우수상”



XingQ Table

조달청 G2B 식별번호
24823144 / 24860039

창의사고력 향상 멀티미디어 학습 시스템

- 창의사고력 향상 콘텐츠 48종
- 창의사고력 향상 테스트
- 안전교육
- 사회성 발달
- 메타인지력, 문제해결력 향상

[설치 적용 분야]

- 초등 돌봄 교실, 초등 방과후 교실 멀티미디어 놀이 학습
- 키즈 카페, 체험관, 교육관, 과학관, 공공기관 멀티미디어 놀이 학습



www.creple.co.kr

김광휘는술

2027학년도 수능 전 논술, 준비된 학생에게 기회가 온다

수능 전 논술은 ‘또 하나의 시험’이 아니라 ‘생각하는 힘을 보여주는 기회’다

2027학년도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이제부터의 시간은 더욱 중요하다. 수능만 바라보며 달려가기도 벅찬 시기지만, 논술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한다.

바로 수능 전에 실시되는 논술고사다. 일부 대학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기 전부터 논술고사를 실시한다. 특히, 10월 초부터 논술 일정이 시작되는 만큼 해당 대학을 지원한 학생들은 수능과 논술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급함이 아니다. 정확한 정보와 자신에게 맞는 전략이다. 필자는 오랜 세월 학생들의 논술과 면접을 지도하면서 늘 이렇게 말해왔다.

“입시는 많이 하는 학생보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학생이 강하다.”

논술도 마찬가지다. 무작정 많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 지원 대학의 공식자료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대학이 어떤 사고력과 답안방식을 요구하는지를 아는 것이 먼저다.

■ 10월부터 시작되는 논술 레이스

2027학년도 수시 논술전형은 수능 이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표적으로 10월 3일에는 서울시립대와 홍익대 서울캠퍼스 자연계열 논술고사가 예정돼 있다. 홍익대는 자연계열에 이어 10월 4일 인문계열 논술고사를 진행한다. 이처럼 논술은 수능이 끝난 뒤 준비하는 시험이 아니다. 특히 수능 전 논술을 선택한 학생은 지금부터 대학별 기출문제와 모의논술을 직접 풀어보며 실전감을 키워야 한다.

“수능을 잘 본 뒤 논술을 생각해 보겠다”는 전략은 수능 전 논술에서는 통하기 어렵다. 지원했다면 준비해야 한다. 준비했다면 실제 답안까지 써봐야 한다.

■ 수능최저가 없다고 쉬운 시험은 아니다

수험생들이 논술전형을 살펴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수능최저 학력기준이다. 대학마다 기준이 다르다.

어떤 대학은 논술을 잘 보더라도 수능 최저를 충족해야 최종 합격이 가능하다. 반대로 수능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대학도 있다. 여기서 학생들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수능최저가 없으면 합격하기 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오히려 수능최저가 없는 대학에서는 논술 자체가 당락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명한다.

“수능최저가 없다는 것은 문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논술 자체가 문턱이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자신의 모의고사 성적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논술 실력, 대학별 문제 유형, 지원 학과의 경쟁률과 전형 조건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 수능과 논술은 서로 싸우는 공부기 아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다. “선생님, 수능 공부도 바쁘는데 논술까지 해야 하나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논술을 준비한다고 해서 수능공부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인문논술은 제시문을 읽고 핵심을 찾고, 서로 다른 관점을 비교하며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시험이다. 이 과정은 국어의 독해력과 사고력과 연결된다. 자연계 수리논술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 배운 수학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개념을 문제 상황에 적용하며 풀이 과정을 설명하는 힘을 본다. 결국 논술의 바탕도 학교공부와 수능공부다.

논술은 그 위에 ‘생각을 표현하는 훈련’을 더하는 것이다.따라서 논술 준비 때문에 수능공부를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 수능을 중심에 두되, 주 1~2회라도 실제 논술시험처럼 시간을 재고 답안을 써보는 것이 좋다. 짧더라도 꾸준해야 한다.

■ 김광휘의 첫 번째 비법, ‘답보다 질문을 먼저 읽어라’

논술을 오래 가르치면서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글을 잘 쓰는 기술이 아니었다. 문제를 제대로 읽는 법이었다.

학생들은 문제지를 받으면 곧바로 답을 쓰고 싶어 한다.

그러나 논술에서 가장 위험한 습관이 바로 그것이다. 먼저 출제자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 정확히 읽어야 한다. ▲‘비교하라.’ ▲‘분석하라.’ ▲‘평가하라.’ ▲‘설명하라.’ ▲‘논하라.’ 이러한 동사가 답안의 방향을 결정한다.

비교하라고 했는데 자기 의견만 길게 쓰면 안 된다. 분석하라고 했는데 단순히 제시문을 요약해서도 부족하다. 논술은 많이 아는 학생보다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확히 읽는 학생이 강하다. 문제를 정확히 읽으면 답안의 절반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 두 번째 비법, 제시문을 ‘한 문장’으로 줄여라

긴 제시문을 읽다 보면 학생들은 내용에 끌려다니기 쉽다. 그래서 나는 학생들에게 각 제시문을 읽고 반드시 한 문장으로 줄여보라고 했다. “이 글이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한 문장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의 핵심을 잡지 못하면 비교도 어렵고 분석도 어렵다.

인문논술에서는 각 제시문의 핵심주장과 차이를 빠르게 정리해야 하고, 자연계 논술에서는 문제에서 어떤 수학개념을 요구하는지를 찾아야 한다. 길게 읽되, 짧게 정리하는 힘. 그것이 논술의 중요한 능력이다.

■ 세 번째 비법, 첫 문장은 ‘땀’보다 ‘정확함’이다

학생들은 좋은 글을 쓰려고 하다 보니 첫 문장을 지나치게 어렵게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럴 필요가 없다. 논술은 문학작품이 아니다. 채점자는 화려한 표현보다 학생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먼저 본다. 그래서 첫 문장은 간결하고 분명해야 한다.

나는 늘 말한다. “첫 문장은 멋있게 쓰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써라”. 첫 문장에서 답안의 방향이 보이면 다음 문

장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 네 번째 비법, 자연계 논술은 ‘정답’보다 ‘과정’을 보여줘라

자연계 수리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풀이과정이다. 최종 답만 맞다고 좋은 답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 이 공식을 사용 했는지, 어떤 조건을 이용 했는지, 어떤 순서로 결론에 도달 했는지를 답안지에 보여줘야 한다. 채점자는 학생의 머릿속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식과 문장으로 표현해야 한다. 나는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라고 했다.

“내 풀이를 처음 보는 사람이 이 답안만 읽고 이해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좋은 수리논술 답안에 가까워진 것이다.

■ 다섯 번째 비법, 반드시 시간을 재고 써라

논술은 집에서 천천히 완성하는 글이 아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읽고, 생각하고, 써야 하는 시험이다. 따라서 연습도 실제 시험처럼 해야 한다. 기출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시간을 재야 한다. 읽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는 않는지, 한 문제에 지나치게 매달리지는 않는지, 마지막 검토시간은 남기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가능하면 마지막 5~10분은 검토시간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다. 문제를 빠뜨리지는 않았는지, 문장이 끊기지지는 않았는지, 수식과 계산에는 오류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 논술은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시간 안에 완성할 수 있어야 한다.

■ 여섯 번째 비법, 모범답안을 외우지 마라

학생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 모범답안을 외우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조금만 달라지면 외운 답안은 사용할 수 없다. 모범답안에서 배워야 할 것은 문장 자체가 아니다. 구조다. 어떻게 시작하는지, 근거를 어디에 배치하는지, 문단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결론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봐야 한다. 답을 외우

지 말고, 답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배워야 한다. 그것이 실전에 강한 공부다.

■ AI 시대에도 자기 생각은 대신할 수 없다

요즘 학생들은 AI를 이용해 논술문제의 해설을 찾고 답안도 만들어볼 수 있다. 분명 유용한 도구다. 그러나 사용순서가 중요하다. 먼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읽고 답안을 작성해 보는 것이 좋다. 그다음 AI나 대학의 공식 해설자료를 활용해 빠진 관점과 약한 논리를 점검할 수 있다.

나는 이 점을 꼭 강조하고 싶다.

AI가 답을 줄 수는 있어도, AI가 곧 답은 아니다.

실제 논술시험장에서 학생을 대신해 문제를 읽어주고 답을 써줄 수는 없다. 결국 필요한 것은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고, 자신의 손으로 써내는 힘이다. AI는 공부를 돕는 도구이지 생각을 대신하는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 대학별 기출문제가 가장 좋은 교과서다

논술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가장 좋은 교재는 무엇일까. 나는 단연 지원 대학의 공식 기출문제라고 생각한다. 대학마다 출제방식이 다르고 원하는 답안의 형태도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을 정했다면 먼저 입학처 홈페이지의 모집요강, 기출문제, 모의논술, 논술가이드북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직접 풀어봐야 한다. 문제만 읽고 해설을 보는 것은 훈련이 아니다. 실제 시험시간에 맞춰 답안을 작성하고, 대학이 공개한 출제의도와 예시답안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약점을 찾아야 한다. 논술은 눈으로 배우는 시험이 아니라 손으로 익히는 시험이다.

■ 전국의 수험생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

2027학년도 수능과 논술을 준비하는 전국의 수험생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남들이 몇 문제를 풀었는지, 어느 학원에 다니는지, 누가 더 빨리 준비했는지만 바라보면 자신의 공부가 흔들린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남과의 비교가 아니다. 자신이 지원할 대학을 정확하게 알고, 그 대학의 공식자료를 확인하며, 매일 조금씩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

워가는 것이다. 논술은 특별한 학생만 잘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다. 정확하게 읽고, 차분하게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훈련을 꾸준히 한 학생에게 기회가 열린다.

수능 역시 마찬가지다. 하루아침에 성적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오늘 공부한 한 문제, 오늘 정리한 한 개념, 오늘 써본 한 편의 답안이 쌓여 결국 시험장에서 힘을 발휘한다.

입시를 준비하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는 날도 있을 것이다. 모의고사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고, 논술답안이 마음대로 써지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럴 때 포기하기보다 자신의 공부방법을 다시 돌아봤으면 한다. 입시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끝까지 자기 속도를 지키는 긴 과정이다.

수능 전 논술은 부담만 있는 시험이 아니다. 준비한 학생에게는 자신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대학이 논술을 통해 보고자 하는 것도 결국 단순한 암기력이 아니다.

▲문제를 이해하고 ▲정보를 판단하고 ▲생각을 정리하며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힘이다. 그 힘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 대학에서 공부하고 사회를 살아가는 데에도 필요한 힘이다.

그래서 나는 논술을 단순한 입시과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논술은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교육이다.

전국의 수험생들이 남은 기간 동안 수능과 논술을 차분하게 준비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가능성을 끝까지 믿었으면 한다.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남의 답이 아니라 자신이 준비해온 생각과 실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준비한 학생에게 기회는 반드시 온다.



■ 김광휘

- ◇ 前현광문리학회 원장
- ◇ 前부산중로학회 원장
- ◇ 前부산학원 부원장
- ◇ 언어영역 문해(창과창)
- ◇ 언어영역 독해(한샘출판사)
- ◇ 홀로서기 논술(대천학사)

전국보라데이실천운동본부, 아동인권 보호·학대 예방

이열 부산시의원과 아동인권 보호 간담회 열고 지역사회 역할 등 의견 교환

전국보라데이실천운동본부 임지아 회장은 부산시의회 이열 시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아동인권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을 비롯한 지역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지난 8월 2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부산시의회 이열 시의원과 전국보라데이실천운동본부 임지아 대표를 비롯해 이현주·손의숙·표정현·강경선 이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현장에서 체감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현안과 아동의 권리 보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아동학대와 아동인권 문제는 일회성 캠페인이나 단기간의 관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행정기관과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전국보라데이실천운동본부는 아동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고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꾸준한 관심이 중요하



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역시 문제가 발생한 이후의 대응 못지않게 사전에 위험 징후를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지방의회와 행정의 정책으로 연결되는 소통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역 현안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피는 지방의회의 역할에도 공감했다. 특히, 이열 시의원이 아동·청소년 문제와 지역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민 및 관련 단체들과 소통해 나가는 것이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국보라데이실천운동본부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어려움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필요한 사안이 지방의회의 정책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아동인권 보호는 특정 기관이나 단체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할 공동의 과제인 만큼 아동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환경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임지아 전국보라데이실천운동본부 대표는 “아이들의 안전과 권리는 한 번의 관심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천할 때 비로소 지켜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아동인권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열 의원의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아동과 청소년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필요한 역할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전국보라데이실천운동본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이열 시의원과 지속적인 소통체계를 이어가면서 아동인권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은 물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도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아이들이 폭력이나 학대의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 주변 어른들이 아이들의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환경,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 조성을 위한 인식 개선과 실천 활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전국보라데이실천운동본부 관계자는 “이번 만남은 아동인권이 라는 공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지방의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모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이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현 기자 jhp@

마포청소년문화의집, 김구 발자취 따라 떠나다

‘김구 데뷔 150주년 기념 월드투어’ 콘셉트 생일카페 팝업스토어 운영



서울 구립마포청소년문화의집(관장 이은혜)은 8월 29일 김구 탄생 150주년을 기념한 ‘RE:Branding 백범 김구’의 일환으로 ‘김구 데뷔 150주년 기념 월드투어’를 콘셉트로 한 생일카페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 다소 어렵고 멀게 느껴질 수 있는 역사와 보존을 오늘날의 문화와 청소년의 눈높이로 새롭게 전달하고자 기획됐다. 김구 선생의 삶과 독립운동의 주요 여정을 인천·상하이·도쿄·서울로 이어지는 ‘월드투어’로 재구성하고, 각 도시의 역사적 이야기를 다양한 미션과 체험

으로 풀어내 참가자들이 김구의 삶과 독립운동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소 대학생 기획단원은 “김구 선생님의 이야기를 어렵고 멀게 느끼기보다 실제로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월드투어’라는 콘셉트를 기획했다”며, “각 도시에서 미션을 수행하고 체험하면서 김구 선생님의 삶과 독립운동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은혜 관장은 “김구 탄생 15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직접 김구 선생님의

삶을 탐색하고 이를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시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역사와 보존을 보다 친숙하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마포청소년문화의집은 이번 ‘김구 데뷔 150주년 기념 월드투어’에 이어 오는 10월 ‘백범일지 리딩로드’를 운영한다.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백범일지’를 읽고 김구의 이야기를 따라 걸으며, 김구의 삶과 정신을 직접 경험하는 참여형 보훈활동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이유연 기자 lyy@

김춘식칼럼

신분증 한 장의 힘-워싱턴 홀로코스트기념관은 어떻게 우리를 설득하는가

“기억은 누구의 것인가?”…기념관에서 알고리즘까지, 역사를 둘러싼 네 가지 질문

본지는 ‘기억은 누구의 것인가?: 기념관에서 알고리즘까지, 역사를 둘러싼 네 가지 질문’을 주제로 김춘식 논설위원의 기획 칼럼을 총 4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본 칼럼은 필자가 포스텍(POSTECH) 재직 당시 공동 저자로 참여한 기획 도서 《기억하는 인간, 호모 메모리스: 기억과 망각에 관한 17가지 해설》(책세상, 2014) 제3장 수록작 〈기억과 망각의 역사: 역사 소환과 기억 정치〉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원작의 학술적 통찰을 토대로,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적·기술적 맥락과 현안에 맞게 한층 깊이 있게 재구성된 이번 연재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편집자 주

미국 워싱턴 D.C.의 홀로코스트 기념 박물관에 들어서면, 관람객은 입구에서 한 장의 신분증을 손에 쥐게 된다. 그 카드 안에는 나치 치하에서 실제 삶을 영위했던 어느 희생자의 신원과 얼굴, 나이, 직업이 아로새겨져 있다.

그 순간, 관람객의 관념 속에 거칠게 맴돌던 ‘600만 명’이라는 막연한 통계 수치는 눈앞의 ‘구체적인 한 사람’의 생애로 재화된다. 이 박물관은 단순히 유물을 열거하고 설명하는 고전적 공간이 아니다. 관람객을 참상의 서사 속으로 깊이 침전시키는 고도의 감성 이입 장치다.

전시 동선은 정교하고도 치밀하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면 수용소를 처음 목격했던 미군 병사들의 충격 어린 시선이 먼저 전시된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실물 크기로 확대된 희생자들의 아득한 시선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유대인들을 실어나르던 가혹한 화물열차가 놓여 있고, 폴란드 마이다네크(Majdanek) 수용소에서 옮겨온 약 4,000켤레의 신발 더미가 유리벽 너머 산처럼 쌓여 있다.

빛 바랜 어른의 구두와 때 묻은 아기의 신발이 뒤엉킨 그 참혹함 앞에서 관람객들은 비통함에 말을 잃는다. 오랫동안 폴란드 박물관의 대어품이었던 이 신발들은 최근 영구 기증 절차를 마감하며 박물관의 영구 소장품으로 안착했다. 유물의 소유권조차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음을 일깨워주는 대목이다.

이어지는 ‘얼굴들의 탑’은 또 다른 정서적 파경을 선사한다. 제2차 세계대전 직전, 리투아니아의 작은 마을 에이시슈케스(Eišiškės) 주민들이 뜰과 카페라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박물관. 건물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설계되었다. 미국 워싱턴 D.C. 홀로코스트 기념박물관 외관 또는 증양홀(Hall of Witness)



▲약 4,000켤레의 신발. 숫자를 사람으로 바꾸는 장치이자, 누군가 배치를 결정한 장면이다. 전사실 내부 사진은 신발 더미 전사실과 ‘얼굴들의 탑’.

앞에서 밝게 웃음 짓던 일상의 사진들이다.

참혹한 시신 사진보다 온기가 남아있는 일상의 웃음이 상실의 깊이를 더욱 아프게 파헤친다. 그러나 전시의 종장(終章)에 다르면 분위기는 달라진다. 난민 입국 완화 조치와 유대인들의 미국 이주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독립선언서가 차례로 배치된다.

여기서 서사의 주어가 조용히 바뀐다는 점을 눈치챌 수 있는가? 유럽 땅에서 자행된 학살의 비극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절망에 빠진 이들을 포용하고 구원한 ‘관용의 제국 미국’의 서사로 마침표

를 찍는다.

이것이 기념관이 수행하는 정교한 재구성이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지만, 결국 그 사실들을 어떤 아메리칸 드림의 신화 속에 안착시킬 것인가를 공간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기념관은 역사적 진실을 부당하게 왜곡하고 있는가? 단정하기는 어렵다. 역사학의 엄정한 비평 기준-사료의 진위성, 증거의 대표성, 해석의 자율성 보장, 감정과 맥락적 원인 설명의 균형-을 대입해 볼 때, 워싱턴 박물관은 합격점을 받는다.

나치의 학살은 객관적 문서와 입증된

증언으로 증명된 사실이며, 유물은 진품이고, 학살의 구조적 원인도 충실히 제시된다. 무엇보다 관람객의 해석을 물리적으로 강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기억이 도덕적 성찰을 넘어 하나의 ‘산업’이자 정치적 자본으로 전환될 때 발생한다. 홀로코스트 생존자 부모를 둔 학자 할크슈타인(Norman G. Finkelstein)은 저서 『홀로코스트 산업』(The Holocaust Industry)을 통해 이 지점을 매섭게 고발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과거 미국 내에서 홀로코스트는 오랫동안 전면에 떠오르지 않았다.

유대계 미국인 주류 사회가 주류사회에의 융합과 정치적 영향력 확보를 최우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동 분쟁을 거치며 이스라엘의 안보 위기가 고조되자, 홀로코스트의 비극은 미국 외교 정책과 유대계 공동체 결속을 위한 핵심적 도덕적 방패로 전면으로 소환되었다.

배상금을 둘러싼 비판은 한층 더 신랄하다. 피해 생존자의 범위를 기형적으로 확장하여 거액의 배상금을 수령했음에도, 그 자금이 정작 고통받은 개인에게 전달되기보다 유대계 정치 단체의 기금과 사업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지적이다. 단적인 예로 언급되는 스위스 은행 집단소송을 보자.

당시 스위스 정부가 난민 송환에 대해 공식 사과했으나, 항간에 알려진 12억 5,000만 달러는 초기 청구액이 아니다. 법원에 제기된 집단소송이 스위스 유수의 은행들과의 합의를 통해 확정된 최종 타결금이었으며, 이 자금은 이후 전 세계 수십만 명의 피해자들에게 분배되었다.

핑켈슈타인의 과격적 주장은 여전히 치열한 논쟁 한가운데 있다. 역사적 비극이 권력과 금전의 지렛대로 오용되는 현상을 겨냥한 정당한 비판이라는 평가와, 역사 부정론자들에게 악의적인 빌미를 제공한다는 반론이 매섭게 맞선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핵심은 특정 입장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명백한 역사적 사실일지라도, 그것이 소환되는 시점과 맥락에 따라 전혀 다른 정치적 역할을 발휘한다는 무서운 진실이다.

이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중동의 충돌 상황을 두고 독일 지성계는 ‘독일이 지켜온 기억문화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두고 격렬하게 분열하고 있다.

홀로코스트의 절대적 독자성을 강조하는 주장에서부터, 로트베르크(Michael Rothberg)처럼 서구 식민주의 폭력의 역사와 홀로코스트를 연대적으로 함께 성찰해야 한다는 다원적 기억론이 거세게 충돌한다.

불붙은 쟁점은 ‘과거에 일어난 팩트’가 아니라, ‘그 팩트를 오늘날 어떤 언어로 소환할 것인가’이다. 우리는 기억이 실시간으로 정치의 언어로 번역되는 고통스러운 현장을 목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사점은 한국의 수많은 역사 및 평화 기념관을 학생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식에도 깊은 울림을 준다.

한국의 기념관 역시 일방적인 추모나 순종적 감탄에 머무르는 성지가 아니라, 공간의 구조와 연출된 의도를 해부하는 비판적 학습의 장으로 거듭나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장 답사 수업에서 학생들이 전시 공간이 유도하는 정서, 이를 구현한 물질적 장치, 그리고 전시가 침묵한 어둠을 스스로 탐색해야 한 뒤, 상호 발표와 토론으로 이어지는 다원적 수업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처럼 공간의 서사를 능동적으로 읽어내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칠 때, 기념관은 비로소 성찰하는 배움터로 전환된다.

더 나아가 중등 및 고등교육 현장에서는 정서적 감흥과 맥락적 원인 규명을 엄격히 구분하는 ‘논리적 글쓰기와 반론 토론’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 자체가 오류는 아니다. 그러나 정서적 몰입이 인과관계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압도할 때 교육은 선동의 위험에 노출된다. 그 경계를 감지하고 객관적으로 논증해 내는 비판적 사고야말로 성숙한 시민 의식의 출발점이다.

신분증 한 장은 관람객의 마음을 흔드는 경이로운 교육적 장치다. 그러나 그 신분증을 인쇄하고 동선을 설계한 주체가 누구인지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감동이라는 달콤한 환각 속에서 판단의 주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 김춘식

동신대학교 에너지경영학과 교수이자 한국독일사학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한국의 교육, 독일의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만나다』(포스텍출판명연구원: 소명, 2025) 등이 있다.

- ◇ 교육연한신문 논설위원
- ◇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 한국독일네트워크(ADeKo) 이사 겸 인문교육위원장
- ◇ 2024 칼만 해외석학(독일 연방교육연구부, 이헨공과대학교)
- ◇ 前 포스텍 인문사회학부 교수
- ◇ 前 국가교육위원회 미래교육정책관 양성특별위원회 전문위원
- ◇ 前 한국전문대학평가인증위원회 부위원장

교육칼럼

AI 시대, 다시 ‘읽는 학생’을 생각하다

독서교육의 성패는 사업의 수가 아니라 학생의 ‘읽는 시간’에서 시작되어야

AI가 질문에 답하고 솜씀 영상이 몇 십 초 만에 정보를 요약해 주는 시대다. 필요한 정보를 찾는 일은 쉬워졌지만,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고 서로 다른 관점을 비교하며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 가는 능력은 오히려 더 중요해졌다.

AI 시대에 독서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독서는 단순히 지식을 얻는 활동이 아니라 글의 맥락을 따라가고, 멈추어 질문하며, 생각과 생각을 연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고 훈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독서 현실은 녹록지 않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의 종합 독서율은 94.6%로 높은 편이지만 연간 평균 독서량은 2023년 36.0권에서 2025년 31.5권으로 줄었고, 평일 하루 평균 독서시간도 82.6분에서 70.3분으로 감소했다. 더욱 놀여겨볼 것은 학교 급별 격차다. 초등학생의 연간 독서량은 63.5권이지만 중학생은 18.9권, 고등학생은 13.7권으로 급감한다. 학교교육을 오래 받을수록 오히려 책과 멀어지는

현실은 우리 독서교육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묻게 한다.

교육부가 지난 7월에 발표한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은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모든 학생을 주도적 독자로 성장시킨다’는 목표 아래 독서교육 집중 학년 운영, 교과 연계 독서프로그램 발굴, 수업 중심 독서교육 선도학교 운영, 독서·토론·글쓰기 동아리 지원, ‘매일 아침 10분 함께 책 읽기’ 확산 등을 제시했다. 읽기를 질문·토론·글쓰기·탐구와 연결하려는 방향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이 강조하는 깊이 있는 학습과도 맞닿아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독서교육 사업이 늘어나면 학생들은 정말 책을 더 읽게 될까?

학교 현장에서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좋은 취지만이 아니라 그것이 구현되는 방식이다. 좋은 정책도 학교에 도착하는 순간 또 하나의 공모사업과 운영계획서, 실적 관리와 결과보고서가 된다면 독서교육의 본질과 멀어질 수 있다. 독서는 특정 사업이 있을 때 하는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학생의 일상이어야 한다. 프로그램의 수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의 하루 속에 실제로 책을 펼칠 시간이 존재하는가이다.

따라서 독서교육 정책의 무게중심을 이제 ‘무엇을 더 할 것인가’에서 ‘학생에게 무엇을 돌려줄 것인가’로 옮겨야 한다. 가장 먼저 돌려주어야 할 것은 읽을 시간이다. ‘2025년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도 학생들이 학교에 바라는 독서 지원으로 ‘수준에 맞는 책 소개’를 가장 많이 꼽았고 학교도서관 이용 편의성, 학급문고 확대, 독서시간 확대 등이 뒤를 이었다.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거창한 독서행사가 아니다. 자신에게 맞는 책을 만나고 방해받지 않고 읽을 수 있는 일상의 조건이 먼저다.

독서를 다시 ‘수업의 방법’으로 돌려놓는 것도 중요하다. 독서교육을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분리하면 독서는 교과학습과 경쟁하는 또 하나의 활동이 되기 쉽다. 사회에서는 읽기를 통해 사회현상을 여러 관점에서 해석하고, 과학에서는

기존의 설명에 의문을 품으며 새로운 탐구 질문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술에서도 작품과 텍스트를 연결하며 인간과 삶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다. ‘읽기-질문하기-토론하기-탐구하기-표현하기’가 교과를 가로지르는 자연스러운 학습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독서교육의 성과를 바라보는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몇 권을 읽었는지, 몇 개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만으로는 학생의 성장을 설명하기 어렵다. 읽은 것을 바탕으로 얼마나 깊이 생각했는지, 어떤 질문을 만들어 냈는지,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만나 자신의 관점을 어떻게 확장했는가를 살펴야 한다. 독서량에서 독서의 질로, 참여 실적에서 사고의 성장으로 평가의 관점을 옮겨야 한다.

학교도서관 역시 책을 대출하는 장소를 넘어 학생이 머물며 읽고, 관심을 발견하고, 생각을 나누는 학교의 지적·문화적 중심이 되어야 한다. 좋은 공간과 충분한 장소뿐 아니라 학생과 책을 연결하고 수업을 지원할 전문인력이 필요한

이유다. 2030년까지 사서교사 배치율을 30%로 높이겠다는 계획은 의미 있지만, 동시에 상당수 학교에는 여전히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국 독서교육은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문화’의 문제다. 교실에서 자연스럽게 학습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독서교육의 성과를 바라보는 기준으로 얼마나 깊이 생각했는지, 어떤 질문을 만들어 냈는지,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만나 자신의 관점을 어떻게 확장했는가를 살펴야 한다. 독서량에서 독서의 질로, 참여 실적에서 사고의 성장으로 평가의 관점을 옮겨야 한다.

AI가 더 빠르게 정보를 찾고 더 정교한 답을 만들어 낼수록 교육은 역설적으로 ‘답을 얻는 능력’보다 ‘답을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무엇이 중요한 정보인지, 누구의 관점이 담겨 있는지, 다른 설명은 가능하지 않은지, 그리고 결국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스스로 물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AI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은 더 많은 독서사업이 아니다. 스스로 책을 펼치고, 오래 읽고, 깊이 생각하며 자신의 질문을 만들어 가는 ‘읽는 학생’이다. 학생에게 읽을 시간을 돌려주고, 좋은 책을 만나게 하며, 읽은 것을 질문과 토론, 탐구로 이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AI 시대 학교 독서교육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



■ 신동현

- ◇ 부산 강서초등학교 교장
- ◇ 前 부산 강서초등학교 교감
- ◇ 前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정책과 장학관
- ◇ 前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관
- ◇ 前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소 장학사

여주교육지원청, 하반기 학교장 통합회의 개최

초·중·고 학교장 대상 RAS 경기 문예체육·학교시설 개방 등 주요 정책 논의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성)은 9월 3일 여주 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관내 초·중·고 학교장을 대상으로 '2026 하반기 학교장 통합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학기 교육정책 방향을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함께 공유하고 학교 현장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 1부에서는 김상성 교육장의 인사말에 이어 9월 1일자로 새롭게 부임한 신임·전임 교장을 소개했다.

교육과와 행정과 과장, 장학사, 각 팀장도 소개하며 교육지원청과 학교 간 협력체계를 확인했다.

2부에서는 교육과 각 팀 담당

장학과 행정과가 하반기 주요 업무와 경기교육대전환의 핵심 정책과제를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RAS 경기 문예체육, 벽개기, 학교시설 개방 등이 다.

RAS(독서·문화예술·스포츠) 경기 문예체육교육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보다 기존 독서·예술·체육 활동을 학생의 일상과 성장 중심으로 연결하는 정책이다.

각 학교는 자체 진단을 바탕으로 실행과 성찰의 과정을 거쳐 2학기 교육활동을 운영한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Phone OFF! RAS ON!'을 실행 메시지로 오아시스 아침운동, 학생 주도 스포츠

클럽, 소규모학교 공동 체육활동 등 여주형 RAS-S를 추진한다.

독서 분야에서는 읽기에서 토론과 글쓰기, 표현으로 이어지는 독서인문교육과 '주말 작가와의 만남'을 운영한다.

오는 10월 31일에는 '여주 RAS 페스타(가칭)'를 열어 학생 주도 활동 결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김상성 교육장은 "경기교육대전환, 크게 제대로라는 슬로건 아래 사람 중심 AI시대 교육을 비전으로 학생은 등교가 설레고 교사는 존중받으며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경기교육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폰 프리 스쿨, RAS 경기 문예체육교육, 벽개기 등 핵심 정책과제가 여주의 학교 현장에서 크게,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학교장 여러분이 중심을 잡아 주시길 바란다"며 "교육지원청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사안에 머뭇거리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주교육지원청은 '같이 여는 미래, 생동하는 행복 여주교육'을 비전으로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여주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책임학과와 지구장학협의회를 통해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병선 기자 kbs@



이번 협의회에서는 상반기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하반기 도서 출간 일정과 그림책 원화 전시, 학생 참여형 체험 부스, 교육공동체 소통 프로그램 등의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오는 10월 28일 열릴 예정인 '가칭' 2026 고양 RA(Reading & Arts Festa)'와 독서인문교육 활동을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고양교육지원청은 학교별 독서인문교육 사례를 공유하고 학교

간 협력을 강화해 학생들의 독서 경험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현숙 교육장은 "독서는 학생이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는 배움의 시작"이라며 "각 학교의 책 읽는 문화가 고양 전체의 독서문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양 RA Festa를 변화가 모이고 다시 확산되는 고양 독서교육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병선 기자 kbs@

이천제일고, 한국관광대와 연계교육 우선선발 협약

식품가공과 학생들 진로 탐색·전공 역량 강화 대학 진학 기회 확대

경기도 이천제일고등학교(교장 손응태)는 9월 3일 한국관광대학교(총장 김성웅)와 학생 진로 탐색 및 전공 역량 강화를 위한 연계교육 우선선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한국관광대학교 학생회관 레스토랑실습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이천제일고 식품

가공과 학생들의 전공 전문성을 높이고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전공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연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조리 및 제과 제빵 실습과 대학 시설 탐방이다.

조리와 제빵 분야 프로그램은 학기당 1회 이상 운영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대학의 교육시설과 실습환경을 직접 경험하며 전공 이해도를 높게 된다. 연계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이천제일고 3학년 학생에게는 한국관광대학교 입학 우선선

발 기회도 제공한다.

우선선발 분야는 호텔조리과와 호텔제과제빵과다. 각 분야에서 1명씩 모두 2명을 선발한다. 선발은 학교 추천과 대학 입학전형을 통해 진행한다. 양 기관은 진로 및 진학 상담과 전공 안내 등 협력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손응태 이천제일고 교장은 "학생들이 대학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직접 경험하며 전공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병선 기자 kbs@

고양교육지원청, 독서인문교육 성과 공유·협력 모색

이현숙 교육장 "각 학교의 책 읽는 문화가 고양 전체 독서문화로 이어지도록"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현숙)은 지난 8월 26일 한양문고 주엽점에서 북작북작 책쓰기 중심교와 북돋움 실천학교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고양 독서인문교육 상반기 공유 및 하반기 운영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 RAS(Reading·Arts·Sports) 정책 가운데 'R(Reading)'을 중심으로 학교에서 추진한 독서인문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운영 방향과 학교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반기에는 북돋움 실천학교를 중심으로 아침·점심 틈새 독서, 사제동행 독서, 학교도서관 협력수업, 독서동아리 등을 운영하며 일상 속에서 책을 읽는 학교문화를 확산했다.

북작북작 책쓰기 중심교에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 책쓰기를 비롯해 교사·학부모·가족이 함께하는 책쓰기 등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창작 활동을 추진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상반기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하반기 도서 출간 일정과 그림책 원화 전시, 학생 참여형 체험 부스, 교육공동체 소통 프로그램 등의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오는 10월 28일 열릴 예정인 '가칭' 2026 고양 RA(Reading & Arts Festa)'와 독서인문교육 활동을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고양교육지원청은 학교별 독서인문교육 사례를 공유하고 학교

간 협력을 강화해 학생들의 독서 경험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현숙 교육장은 "독서는 학생이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는 배움의 시작"이라며 "각 학교의 책 읽는 문화가 고양 전체의 독서문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양 RA Festa를 변화가 모이고 다시 확산되는 고양 독서교육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병선 기자 kbs@

안민석 교육감 "경기교육 대전환 함께 이뤄내자"

경기교육청-도의회, 조찬 간담회서 경기교육 현안 협력 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은 9월 3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조찬 간담회를 열고 경기교육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경기교육의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과 현장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안민석 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 실·국장을 비롯해 국중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선희·김영희 부위원장 등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체계 마련 ▲RAS(Reading·Arts·Sports)교육 활성화 ▲다양한 진학 정보 제공

▲경기형 유보통합 추진 ▲AI시대 문해력 및 민주시민교육 방향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경기교육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제안과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고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뜻을 모았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는 경기형 미래교육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주요 정책을 긴밀히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대안을 마련하는 등 소통과 협력체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안민석 교육감은 "경기도에서 교육의 대전환을 함께 이뤄내야 한다"며 "앞으로 주요 경기교육 정책을 도의회와 긴밀히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대안을 함께 모색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밝혔다.

김병선 기자 kbs@

경기 용문초, 군부대 체험학습으로 진로교육 강화

박정현 교장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역량 키우고 미래 준비하길 기대"

경기도 양평 용문초등학교(교장 박정현)는 9월 4일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군부대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이번 체험학습은 진로교육과 연계한 현장 체험활동의 하나로 마련됐다. 학생들이 군 관련 직업을 이해하고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목적이 있다.

용문초는 전교생의 약 70%가 군인 자녀로 구성된 학교다. 학생들에게 군부대는 익숙한 환경이지만 실제 부대 내부를 체험할 기회는 많지 않았다.

이에 용문초는 학년 초 진로교육과 연계해 이번 체험학습을 기획했다. 지역사회와 학부모회의 적극적인 지원도 체험학습 운영에 힘을 보탰다.

학생들은 체험에 앞서 안전교육과 부대 견학 관련 사전교육을 받았다. 당일에는 보안교육과 부대 소개 영상 시청이 진행됐다.

각종 부대 시설을 견학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에도 참여했다. 장비와 장갑차 탑승 체험도 진행했다. 병영 급식을 직접 체험하고 PX인 총성클럽도 방문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최정예 기동사단"

학생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군부대의 다양한 시설과 장비를 직접 경험했다. 이를 통해 군인이란 직업과 병영 생활에 대한 이해도 높였다.

한 학생은 "장갑차를 직접 타보고 부대 시설을 둘러보면서 군인이라는 직업을 더 자세히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또 "평소 궁금했던 병영 생활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 재미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용문초는 '올바른 인성과 역량을 키워가며 미래를 준비하는 행

복한 학교'를 비전으로 체험 중심의 진로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이 다양한 현장 체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박정현 용문초 교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연계된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해 자기주도적 역량을 키우고 미래를 자신 있게 준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교직원과 군부대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김병선 기자 kbs@

PMZ

Pozzalan Mat Zone

평균 98.2%, 원적외선 방사율 90.4%의 친환경 매트로
공공기관, 지자체에서도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포졸란매트존입니다.

서귀포시
'치유의 숲' 조성

용인시
'여성길(Earthing)' 조성

의정부시
'맨발로(路)' 조성

▶ 4줄란 매트길의 특성

1. 원적외선 방사

세포조직을 활성화시켜
온열효과로 인해 신진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2. 항균

포졸란 분말을 표면에
도포하여 불필요한 미생물의
활동을 억제해준다.

3. 탈취

외부환경으로부터 차단막
역할을 하여 기존제품 대비
부식속도가 느리다.

4. 친환경성

천연소재로서 자연환경과
이질감 없는 경관의 연출이
가능하고 수요가 높다.

UARU

(주)유아르

강일도 원주시 호저면 교산동막길 108-36 T. 033-808-7013 www.uaru.co.kr

크리플 ‘FunXingQ(핀싱큐)’, 日 지자체 인지증 예방사업 현장 적용 시범운영

현지 실증 후 일본 전국 지자체 확산 개호·지역포괄케어 서비스 연계 추진

인지케어 전문기업 주식회사 크리플(CREPLE)의 SaaS 기반 인지케어 구독서비스 ‘FunXingQ(핀싱큐)’가 일본 후쿠이현 에치젠시가 추진하는 지역 인지증 예방사업의 실제 현장에 적용돼 운영되고 있다.

에치젠시는 국립연구개발법인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NCGG), 주식회사 HOTTO Rehabilitation Systems(ほっとリハビリシステムズ)와 연계해 인지증 및 프레이 예방을 위한 과학적 근거 기반 프로그램의 구축과 효과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에치젠시 공식 발표에 따르면 3자는 2025년 11월 26일 관련 협정을 체결했다.

에치젠시가 공개한 2026년도 ‘뇌활 쉼런지 프로젝트’ 사업자료에는 인지기능 저하의 조기 발견부터 인지·운동기능 개선 프로그램,

효과 실증으로 이어지는 사업 구조와 실제 뇌활성과 프로그램 운영 현상이 제시돼 있다.

해당 지역 시범사업에는 한국 크리플의 FunXingQ가 SaaS 기반 인지케어 서비스로 적용돼 일본 현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크리플은 일본 파트너사 HOTTO와의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인지케어 플랫폼 기술과 솔루션 운영을 담당한다.

에치젠시 공식자료에 따르면 에치젠시는 대상자 발굴과 조기발견·지원체계 구축을, NCGG는 인지증·프레이 예방 관련 연구지식 제공과 사업 전반의 전문적 조언을, HOTTO는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실시와 효과측정을 주요 역할로 수행한다.

여기에 크리플은 HOTTO와 협력해 FunXingQ의 플랫폼 기술과 서비스 운영을 제공한다. 이를 통



해 일본의 지역사회 운영역량과 국립연구기관의 전문성, 현지 사업자의 실행체계에 한국의 SaaS 인지케어 기술이 결합된 실증모형을 구축하고 있다.

FunXingQ는 특정 전용 하드웨어 판매를 전제로 하지 않는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반 인지케어 구독서비스다.

이용자가 다양한 문제해결형 인지활동을 일상적으로 반복하도록 지원하고,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축적되는 학습·행동 데이터를 FunXingQ의 운영성과와 지속 이

용 가능성, 서비스 적용모형을 검증할 계획이다.

지역 거점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이용자가 향후 가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인지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확장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참여와 이용상태를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하는 지역사회형 인지케어 모형을 구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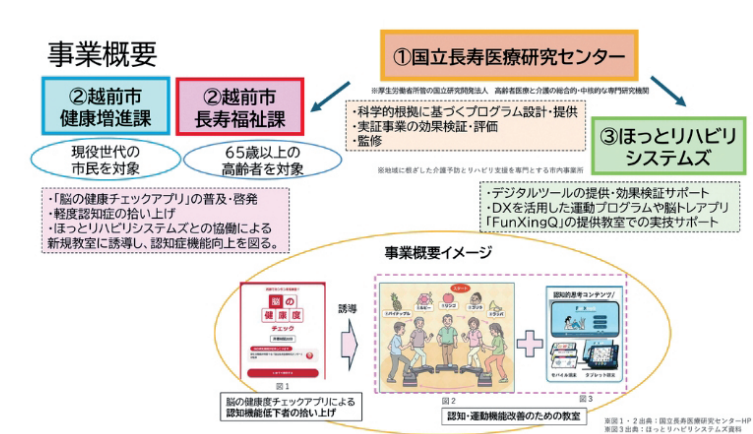
크리플과 일본 파트너사는 2027년 3월까지 현지 실증을 진행하면서 실제 지역사회 환경에서 FunXingQ의 운영성과와 지속 이

용 가능성, 서비스 적용모형을 검증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이후에는 에치젠시에서 축적한 운영경험과 실증결과를 기반으로 일본의 다른 지자체로 확산 가능한 SaaS 인지케어 사업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예방·돌봄 및 지역포괄케어 영역과 연계하고, 관련 절차와 제도적 검토를 거쳐 개호서비스 체계 내 활용 가능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관리보다 중장년층부터 인지건강을 관리하는 조기예방



모형을 지향한다.

크리플은 FunXingQ를 통해 인지케어를 특정 검사나 단기 프로그램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사회와 개인의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Everyday Cognitive Care’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주)크리플 관계자는 “FunXingQ가 일본 지자체의 실제 인지증 예방사업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크리플의 SaaS 인지케어 기술이 해외 공공·지역사회 환경에서 사업화 모형을 검증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2027년 3월까지

현지 파트너와 실증을 진행한 뒤 일본 전국 지자체로 확장 가능한 구독형 인지케어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치젠시 공식 공개자료는 에치젠시·NCGG·HOTTO의 3자 협정, 인지증·프레이 예방사업의 목적과 역할, ‘뇌활 쉼런지 프로젝트’의 사업구조 및 프로그램 운영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다. FunXingQ의 크리플 소유·개발 주체는 공개 학술자료에서도 ‘FunXingQ (Crepel)’로 확인된다.

안용성 기자 ays@

부산 남구 아파트연합회 “풍피두센터 부산·이기대 예술공원 조속 추진해야”

이춘식 회장 등 주민대표·박미순 시의원·노택균 구의원 참석, 기자회견·성명 발표

부산광역시 남구 주요 아파트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남구아파트연합회(회장 이춘식)가 ‘풍피두센터 부산’과 이기대 예술공원의 조속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부산시와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남구아파트연합회는 지난 8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통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이기대와 세계적인 문화예술 콘텐츠가 결합하면 남구는 부산을 넘어 국내외가 주목하는 문화·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철저히 검증하고 보완하되 논란을 이유로 부산과 남구의 미래 가능성까지 멈춰 세워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춘식 남구아파트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박미순 부산광역시의원, 노택균 부산 남구의원, 허정 남구아파트연합회 사무총장, 남기득 데시앙 아파트 전임 회장, 박용한 LG메트로시티 감사 등이 참석해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연합회는 부산시가 주관한 ‘풍피두센터 부산’ 관련 시민 여론조사에서 찬성 65%, 중립 18.2%, 반대 16.8%로 나타난 결과를 언급하며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충분히 경청해야 하지만 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는 시민과 남구 주민들의 의견 역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무게가 더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풍피두센터 부산을 둘러싼 논의가 정치적·정파적 찬반



대립으로 흐르기보다는 재정부담과 계약조건, 운영방식, 자연환경 보존, 지역예술계 상승 등 주요 쟁점을 투명하게 검증하고 부산시민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합회는 이기대 자연환경 보존을 사업 추진의 핵심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연합회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분별한 개발이 아니다”며, “이기대의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자연과 건축, 문화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세계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부산 청년과 지역 예술인들이 전시·장작·교육·국제교류 등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풍피두센터 부산이 해외 콘텐츠 소개하는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부산의 예술을 세계와 연결하는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미순 부산시의원은 “풍피두센터 부산은 단순한 찬반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향후 협의의 과정에서 부산시의 재정부담과 계약조건 등을 충분히 살펴 부산시민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예술계와의 상생은 물론 부산의 문화·관광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접점은 정해진 결론을 확인

하는 절차가 아니라 문제점은 보완하고 가능성은 살리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구아파트연합회는 풍피두센터 부산과 이기대 예술공원 사업을 부산항선 트램과 용호동 지선 연결, 용호부두 항만재개발 등과 연계해 남구 전체의 미래 성장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연합회는 “문화는 풍피두센터, 자연은 이기대, 교통은 트램, 해양관광은 용호부두로 연결하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며, “관광객 증가가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 숙박·외식산업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주민들이 실질

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춘식 회장은 “천혜의 자연인 이기대와 세계적인 미술관인 풍피두센터의 만남은 남구를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재정과 환경, 계약·운영방식은 철저히 검증하되 문제가 있다면 고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은 우리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세계적인 문화예술을 경험할 기회와 새로운 일자리, 더 높은 도시 경쟁력을 물려주기 위한 장기적인 투자”라며 부산시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노택균 남구의원은 “세계적인 문화시설 유치 효과가 주민 생활과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며, “교통 접근성 개선과 주변 인프라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함께 추진해 사업의 실질적인 혜택이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정 사무총장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개발이 아니라 이기대의 자연은 제대로 지키면서 남구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책임 있는 발전”이라며, “이제는 소모적인 찬반 논쟁을 넘어 문제에는 해법을 제시하고 가능성은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구아파트연합회는 앞으로도 주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서명운동과 언론 홍보 등 다양한 주민 참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부산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끝으로 “풍피두센터 부산과 이기대 예술공원은 어느 한 단체나 정파의 사업이 아니라 부산과 남구의 미래를 놓고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부산시는 시민들의 우리에는 구체적인 대책으로, 주민들의 기대에는 책임 있는 정책과 결단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요구 기자 hog@

전남광주 직업계고 우수 인재 양성·배출 입증

반도체 기업 ‘온세미 코리아’ 72명 합격… 내년부터 순차적 채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관내 직업계고 학생 72명이 우수 반도체 기업인 ‘온세미컨덕터코리아(주)’의 2027년도 필드파트너(Field Partner) 채용에 최종 합격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5월 직업계고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세미코리아 채용설명회를 개최하여 현

장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었다.

이후 교육청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원서 접수부터 면접 전형까지 채용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했으며, 그 결과 전남·광주에서 72명의 최종 합격자를 배출했다.

합격한 학생들은 2027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채용된다.

이번 성과는 전남·광주 지역 직업계고가 2023년도 삼선전자 45

명, 2024년도 엠코 83명 등 굵직한 반도체 대기업에 다수의 합격자를 지속적으로 배출한 데 이은 성과이다.

이는 전남광주 교육청이 첨단 산업 분야의 요구에 맞춘 체계적인 직업 교육을 통해 우수한 반도체 생산직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배출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특히, 우수 반도체 기업 취업 실적은 향후 반도체 특화단지 등 관련 산업이 전남광주 지역 유치가

본격화하면, 지역 직업계고에서 현장 실무 인력을 적기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

음을 입증해 줄 객관적 자료로 주목되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관계자

는 “우리 지역 직업계고 학생들은 이미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주목할 만큼 뛰어난 실무역량을 입증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 반도체 산업과 직업계고 교육을 긴밀히 연계해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전문 기술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취업지원센터를 통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도울 계획이다.

장삼석 기자 2580news@daum.net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삶의 전 과정을 함께 책임지는 금정구’로 만들 것”



특별인터뷰 |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2년 전 보궐선거 때 전국적인 관심 속에서 부산 금정구청장에 당선된 후 지난 6.3선거 때 당당하게 재임성한 민선 9기 윤일현 구청장을 본지에서 만나봤다. 세밀하게 행정을 행기는 세무사 출신 윤일현 구청장은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교육 분야에도 해박한 지식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온화한 스타일로 금정구민은 물론 모든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았다. 금정구에 산재해 있는 문제들을 함께 짚어봤다.

■ **민선 9기 금정구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앞으로 4년 동안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금정구의 핵심 현안과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과를 말씀해 달라.**

“민선 9기의 최우선 과제는 지난 임기 동안 마련한 변화의 기반을 구민이 체감하는 결과로 연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랜 현안은 실질적인 해결 단계로 끌어올리고, 구가 직접 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은 속도와 완성도를 높이겠다. 큰 과제와 일상의 변화를 함께 행기는 것이 앞으로 4년의 기본 방향이다.

먼저 침례병원 정상화와 금샘로 완전 개통, 상수원보호구역 문제처럼 주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쳐 온 현안은 더 이상 논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정부와 부산시, 대학 등 관계기관의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금정구도 지역의 요구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협의를 이끄는 역할을 다하겠다.

금정이 가진 자원과 공간을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 연결하는 일도 중요하다. 금정산 국립공원 주사무소 유지와 관광벨트 조성, 부산대학교와 전 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고, 노포역 일원과 구서IC 주변의 발전 가능성이 금정의 미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실현 가능한 방향을 마련하겠다. 동시에 통학로와 보행환경, 주차, 문화·체육시설, 돌봄과 복지처럼 구가 직접 쟁길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 4년 뒤에는 대형 현안이 해결의 가시적인 단계에 들어서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금정이 전보다 분명히 나아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씩 결과를 만들어가겠다.”

■ **침례병원 정상화, 어디까지 왔나? 금정구민의 오랜 숙원인 옛 침례병원 정상화의 현재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 공공의료 거점으로서의 활용 방안을 밝혀 달라.**

“침례병원 정상화는 폐업한 병원의 기능을 되살리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 금정구민의 건강권과 부산 동북권의 의료안전망을 회복하는 문제이다. 현재 부산시가 침례병원 부지를 확보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부의 최종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부산시가 상당한 재정 부담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으로 밝혀졌지만, 아직 정부 차원의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의 결정이 선행돼야 병원의 규모와 기능, 사업 방식과 일정도 구체화할 수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개원 시기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정상화가 결정된다면 응급·필수 의료와 고령층 의료 수요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부산 동북권의 공공의료 거점이 되어야 한다는 방향은 분명하다.

금정구가 사업을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주민의 요구를 정부와 부산시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금정구와 부산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백종현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모두 뜻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긴밀히 협력해 정부의 조속한 심의를 이끌어 내고, 사업 추진이 결정되면 인허가와 관계기관 협의 등 구가 맡는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 오랜 시간 기다려 온 주민들이 다시 막연한 기대만 드리기보다, 이제는 실질적인 결정을 이끌어 내는 데 힘을 모으겠다.”

■ **노포역과 종합버스터미널 일대를 부산 북부권의 새로운 교통·상업·주거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구제척의 구체 개발 구상은 무엇인가?**

“노포역 일대는 부산의 끝이 아니라, 부산과 경남을 연결하는 북부 관문이다. 도시철도와 종합버스터미널이 모여 있고 양산 방면과도 연결되는 만큼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현재 부산시는 노포역 일원 대규모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하면서 도시철도 차량기지 재배치와 터미널 기능 개선, 고층철도 연계 가능성 등 여러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아직 세부 사업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 수립 과정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

금정구의 입장은 분명하다. 노포역 일대가 단순히 교통수단을 갈아타고 지나가는 공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환승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상업·업무·주거·공공기능이 조화를 이뤄 사람들이 머물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 개발에 따른 교통과 환경의 영향, 인근 주민의 생활 변화도 충분히 살펴야 한다. 부산시의 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 의견과 금정구의 발전 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개발의 효과가 주변 지역과 지역경제에도 이어지도록 하겠다.”

■ **금샘로 완전 개통과 교통난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 금샘로 개통과 구서IC 주변 교통 개선 등 금정구의 만성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말씀해 달라.**

“금정구의 교통 문제는 금샘로 미개통이나 구서IC 주변의 혼잡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중앙대로에 집중된 남북 교통축과 부산대 주변의 교통량, 주요 교통 요충지의 혼잡, 주거지역의 주차와 보행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그중에서도 금샘로 완전 개통은 끊어진 도로망을 연결하고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이다. 핵심은 부산대학교의 학습권과 안전을 충분히 보호하면서, 주민의 이동권과 오랜 교통 불편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금샘로 개설의 주체는 부산시인 만큼 부산시와 부산대학교가 객관적인 기술 검토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부산시와 부산대학교, 교수와 연구진, 학생, 지역 주민 등 여러 관계자의 입장이 얹혀 있어,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를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부산시와 부산대학교, 학생 대표, 교수진 등을 차례로 만나 깊이 있게 논의를 나누고 있고, 10월에는 지역현안사업 공론화위원회와 함께 관계자 분들과 전문가 그룹, 지역 주민 등을 모시고 금샘로 개통 관련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처럼 금정구가 적극적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대학 구성원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 과정과 안전대책이 투명하게 공유되도록 협의를 이어가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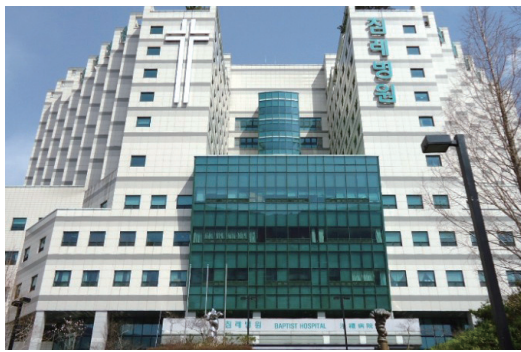
단기적으로는 교통량과 사고·혼잡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교차로와 신호체계, 통학로와 보행환경, 생활권 주차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 중·장기적으로는 도로망과 대중교통, 주차와 보행체계를 함께 살펴 금정구 전체의 교통 흐름을 개선할 방향을 마련하겠다. 교통난 해소를 하나의 대형 도로 사업에만 기대하지 않겠다. 금샘로 완전 개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주민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보행 개선도 함께 행하겠다.”

■ **부산대 상권을 다시 살릴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침체된 부산대 대학가와 상권을 청년문화·창업·공연·관광과 연계해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금정구만의 전략은 무엇인가?**

“부산대 상권의 침체는 소비환경의 변화와 빈점도 증가, 임대료 부담, 유동인구 감소, 상권 내부의 동선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일회성 행사나 단편적인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회복에 한계가 있다. 부산대역에서 대학 정문까지 이어지는 공간을 단순한 상업거리가 아니라 청년문화와 창업, 공연과 관광이 어우러져 사람들이 찾아오고 머무르는 대학가로 만들어가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이러한 청사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민선8기 전담조직인 경제산업과를 신설했고, 현재까지 공모사업 3건을 통해서 83억 8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부산대 상권 활성화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화행사과 상권지원 프로그램 등은 행사 횟수보다 실제 매출과 방문객 증가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점검하겠다. 효과가 확인된 사업은 지속성을 높이고, 청년예술가와 지역 문화기획자,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공연과 전시, 거리 콘서트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운영방식을 보완하겠다. 부산대학교의 연구역량과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지역 현안과 상권에 연결하는 협력도 강화하겠다. 대학과 상인, 학생, 주민, 행정이 함께 논의하고 실행하는 구조를 만들어 부산대학교가 다시 청년과 시민이 찾고 머무는 거리로 활력을 회복하도록 하겠다.”

■ **청년이 떠나지 않는 금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청년 일자리와 창업, 주거, 문화정책을 연계해 청년들이 금정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말씀해 달라.**



추진하겠다.

돌봄은 시설의 수뿐 아니라 실제 돌봄이 필요한 시간과 지역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돌봄시설, 도서관과 생활문화공간을 연계해 방과 후 돌봄 공백을 줄일 방안을 마련하겠다. 입학지원금과 교육구입비처럼 학부모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은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 교육청이 학교 교육을 책임진다면, 금정구는 학교와 대학, 지역사회를 촘촘하게 연결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 **노후 주거지역에 대한 재개발·재건축과 함께 주차장, 보행환경, 생활SOC 등 노후 주거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달라.**

“안정적인 주거환경은 주민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금정구의 노후 주거지역을 개선하려면 재개발·재건축과 생활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모든 노후 지역을 대규모 정비사업만으로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주민 동의와 사업성, 부산시의 정비계획 등 여러 조건이 필요하다. 구가 사업 시기나 결과를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관련 절차를 정확하게 안내하고 구의 권한 범위 안에서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지역에는 빈집과 노후주택 정비, 소규모 집수리, 골목길과 보행환경 개선, 주차공간 확보, 경사로와 계단의 안전시설 보강과 같은 생활밀착형 사업이 필요하다. 지역별 여건과 주민 수요를 살펴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도로와 공원, 주차장, 돌봄·복지시설 등 생활SOC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부산시와 사업 주체에 금정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 오래된 동네를 모두 없애는 것이 주거환경 개선의 목표는 아니다. 기존 공동체와 지역의 특성을 존중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주민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하고, 새로운 주민도 정착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 **폭염과 기후재난이 일상적인 재난으로 자리 잡고 있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경로당, 복지시설 등 폭염 취약시설에 대한 대응방안을 말씀해 달라.**

“폭염은 이제 잠시 견디면 지나가는 불편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재난이다.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 장애인, 야외근로자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는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취약계층 안부 확인과 방문 건강관리, 무더위쉼터 운영, 온열질환 예방물품 지원 등 현재의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우선이다. 폭염 취약시설의 냉방 상태와 실제 이용 여건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경로당, 복지시설에 필요한 차열·단열, 고효율 냉방기기, 창호 개선, 그늘막 등의 시설은 일률적으로 설치하기보다 시

설별 상태와 이용자의 특성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유치원과 학교시설은 교육청을 통해 추진 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고, 경로당, 복지시설 등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급성과 효과가 높은 시설부터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아울러, 시설 개선에는 국·시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해 추진하겠다. 시설을 설치하고도 냉방비 부담 때문에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존 에너지 지원제도와 연계도 함께 살펴 보겠다. 중·장기적으로는 폭염 취약지역을 파악해 그늘막과 가로수, 녹지와 휴식공간을 필요한 곳에 우선 배치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 도시 공간 자체가 열을 덜 머금고 주민이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폭염 대응을 매년 반복되는 사후 조치에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에너지와 교통, 녹지와 도시계획, 복지와 안전을 함께 살피는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중장기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계획과 부서별 사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겠다.”

■ **앞으로 4년, 민선 9기 임기 동안 금정구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변화는 무엇이며, 구청장께서 그리고 있는 '미래 금정'의 모습을 구민들에게 말씀해 달라.**

“앞으로 4년 동안 금정구를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삶의 전 과정을 함께 책임지는 도시’로 만들어가고 싶다. 아이들은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하며, 청년은 일자리와 창업의 기회를 찾고, 중장년은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어르신은 익숙한 지역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상인은 다시 활력을 찾고, 주민은 가까운 곳에서 문화와 체육,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공간적으로는 노포역과 구서IC 일원의 발전 가능성을 금정의 미래 성장과 연결하고, 부산대학교와 전 통시장은 다시 사람과 활력을 불러낼 것이다. 노후 주거지역은 기존 공동체를 지키면서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

침례병원 정상화와 금샘로 완전 개통,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 같은 오랜 현안도 더 이상 논의에만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결정과 진전으로 이어져야 한다. 금정산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자원은 잘 보전하면서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가겠다.

임기 안에 구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책임 있게 추진하고, 정부와 부산시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은 관계기관이 움직일 수 있도록 지역의 힘과 행정력을 모으겠다. 모든 사업의 완성을 미리 약속하는 것은 설부르지만, 어렵다는 이유로 손을 놓거나 책임을 미루지 않겠다.

행정의 성과는 계획을 얼마나 많이 세웠는지 아니라 주민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 4년 뒤 구민들이 “금정에 계속 살고 싶다”, “우리 동네가 전보다 분명히 나아졌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고 하나씩 결과를 만들어가겠다. 이런 인터뷰 자리를 마련해 준 교육연합신문에 감사드립니다.” 이정형 기자 jyh@

부산교육청, 직업계고 권역별 진로설명회

중학교 관리자·교사 대상...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정보 제공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중학교 현장의 직업계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진로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학교 관리자와 교원을 대상으로 '직업계고 진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월 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학교 관리자와 교사들에게 직업계고의 비전과 경쟁력을 폭넓게 알리고,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춘 내실 있는 진로·진학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4일 오후 동래구 허심청에서 열린 중학교 관리자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7일부터는 5개 교육지원청을 순회하며, 중3 담임 및 진로교사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부산교육청은 지난해와 달리 학교 관리자를 위한 설명회를 따로 개최하고, 설명회 횟수도 5차례로 늘리는 등 직업계고 홍보를 한층 강화했다.

중학교 교사들의 관심도 높아 권역별 설명회에 최대 200여 명이 참석을 희망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중학교 현장 교사에게 직업계고의 비전과 경쟁력을 알리고,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진학 선택을 돕기 위한 다양한 안내가 이루어진다.

직업계고 리플릿과 안내자료도 배부해 일선 학교의 진학 지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전망이다. 또,

직업계고 현장 교사들도 설명회에 참석해 자신의 학교 홍보도 할 수 있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설명회가 중학교 교원들의 직업계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학생 한명 한명의 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ljh@

부산 경일고 학부모회, 따뜻한 재능나눔 실천

은빛노인대학서 실버주산 봉사활동... 지역사회 나눔과 배려 문화 확산

부산 경일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지역 어르신들의 배움에 함께하며 따뜻한 재능나눔을 실천했다.

지난 8월 24일, 경일고 학부모들은 낙동종합사회복지관 은빛노인대학을 찾아 '실버주산' 수업을 지원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해 어르신들의 학습을 돕고, 세대 간 소통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학부모들은 수업에 함께 참여해 문제 풀이를 도우며 주산알을 움직이는 어르신들의 결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정을 나눴다. 특히, 석정연 경일고 학부모회장이 앞장서 자신의 재능을 매개로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봉사활동에 힘을 더했다.

낙동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은빛노인대학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고 있다. 실버주산 수업은 집중력과 인지활동을 돕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석정연 경일고 학부모회장 겸

주산협회 회장은 "주산을 통해 어르신들과 함께 배우고 소통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작은 재능도 나눌 때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에게 나눔을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부모가 먼저 행

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큰 교육"이라며, "학부모들의 봉사와 나눔을 통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려와 나눔의 가치를 배우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한 수업 지원을 넘어, 학부모와 어르신이 배움을 매개로 만나 교류하는 세대 간 소통의 장으로 이어졌다. 부모가 먼저 이웃을 돌아보고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들은 나눔을 특별한 활동이 아닌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경일고 학부모들은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학부모가 심은 작은 나눔의 씨앗이 아이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 뿌리가 다시 지역사회에 따뜻한 울림으로 이어지는 것. 바로 경일고 학부모들이 실천하고 있는 지역사회 나눔의 의미라고 밝혔다.

한난희 기자 hnh@

부산 송도중, 등굣길 캠페인·예방교육

김한섭 교장 "존중·배려가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한 출발점"

부산 송도중학교(교장 김한섭)는 지난 8월 25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등굣길 캠페인을 실시하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나섰다. 9월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은 물론 성희롱·성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일상

적인 학교생활 속에서 친구와 교직원을 존중하는 태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아침 등굣길에는 학교폭력 예방 문구가 담긴 팻말을 활용한 캠페인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학교폭력 예방과 친구 존중, 배려의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접하며 학교폭력 근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홍보활동을 넘어 학생 스스로가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배려하는 학교생활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계기가 됐다. 이어 7교시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진행됐다.

김한섭 교장은 "학교폭력 예방은 특별한 날에만 강조하는 일회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매일의 학교생활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실천하는

데서 시작된다"며,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나 장난도 상대방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는 만큼 서로의 감정과 경계를 존중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장은 "학교는 모든 학생이 안심하고 배우며 생활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학생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활동을 지속해 존중과 배려가 일상이 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황요기 기자 hog@

기자수첩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먼저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오랜 세월 우리 사회에서 사용돼 온 속담이다.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대책을 세우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는 이 속담이 낯설지 않게 반복되고 있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닥칠지 알 수 없다. 평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앞으로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아무 일이 없을 때 미리 대비하는 것이 진정한 안전행정이 아닐까.

기자는 과거 한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나 수동심폐소생기 등을 응급상황에 대비한 안전장비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때 돌아온 답변은 의외였다. "다들 건강해서 이곳에서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렇다면 예비군 훈련과 민방위 훈련은 왜 실시하는가. 실제 전염이나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평소 훈련하고 대비하는 것 아닌가.

안전장비 역시 마찬가지다. 사고가 발생한 뒤 "그때 설치할 걸 그랬다"고 후회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준비돼 있어야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특히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집중호우, 산불 등 각종 재난이 잇따르고 있다. 재난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피해 규모 역시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안전 대응체계는 과연 충분한가. 얼마 전 기자는 최근 혁신제품으로 출시된 산소 마스크를 접했다.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으로, 제품 설명상 마스크를 착용하면 일정 시간 동안 산소가 발생해 대피 과정에서 호흡을 돕는 방식이다.

특히,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것이 불길만은 아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유독가스와 연기 때문에 질식 위험이 매우 크다. 실제 화재에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



이정현 기자

속한 대피와 함께 '골든타임' 안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자는 이 제품이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 얼마나 알려져 있는지 궁금해 몇몇 구청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눠봤다. 일부 지자체에는 관련 제품이 샘플 형태로 설치된 곳도 있었지만, 상당수에서는 산소마스크 자체를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제품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해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모습을 접하면서 기자의 머릿속에는 다시 한 번 그 속담이 떠올랐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물론 새로운 안전제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관공서나 사업장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 인종 여부, 실제 재난 상황에서의 효용성, 비용 대비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검토조차 하지 않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장에서 화재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관계자들은 종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자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화재는 단 몇 분, 아니 몇 초가 생사를 가를 수 있다. 그래서 안전에는 '나중'이 없다.

관공서와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학교, 복지시설,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는 어떤 재

난이 발생할 수 있는지 미리 살펴보고, 필요한 장비와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행정의 기본 책무다.

몇 달 뒤 화재 예방의 달을 맞아 각 기관이 일제히 캠페인을 벌이고 현수막을 내걸고 홍보물을 배포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보여주기식 캠페인'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수막 한 장을 더 거는 것보다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교육 역시 마찬가지다. 교육을 했다는 실적을 남기는 것보다 실제 상황에서 시민과 공무원이 당황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렇다면 '적극행정'이라는 말도 안전 분야에서부터 실천돼야 하지 않을까. "우리 지역에서 아직 사고가 없었다.", "건강한 사람들이라 필요하지 않다.",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 대응하면 된다." 이런 안일한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안전불감증일 수 있다.

재난은 행정기관의 결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사고가 발생한 뒤 부랴부랴 대책회의를 열고 장비를 구입하는 행정보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는 행정이 진정한 적극행정이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장비 하나가 평소에는 '쓸모없는 물건'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재난의 순간에는 그 하나가 한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더 이상 안전행정의 현실을 표현하는 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고가 난 뒤의 후회가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의 준비다. 그리고, 그 준비의 출발점은 바로 행정기관의 작은 관심과 적극적인 검토에서 시작된다.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쿨러닝 차열페인트 솔루션!

온도 저감형 친환경 수용성 차열 페인트

지구 온도를 낮추고 미래세대를 지킵니다!

CO₂

탄소배출 30% 저감

온도저감 최대 40°C

기후위기 대응 필수

지금 시작해야 2050 탄소중립! 할 때입니다!

Cool Running 쿨러닝 차열페인트

WHY? 쿨러닝 차열페인트란?

빛빛을 반사하고 열을 차단하여 건물과 도로의 온도를 낮추고, 에너지 사용량도 절감하는 페인트!

표면온도 20~40°C 저감

실내온도 3~5°C 저감

냉방에너지 30% 절감

탄소배출 30% 저감

지속가능한 스마트 친환경 도시 구현!

쿨러닝 - CR (건축용)

쿨러닝 - CP (바닥용)

쿨루프 / 클레이브먼트 효과!

서울시 '하얀지붕' 프로젝트 실행시 평균 2°C 온도저감 효과 가능
자료: 서울연구원

전세계 27개 도시 쿨루프 효과 도입 실험 결과, 냉방에너지 15~35% 감소, 이산화탄소 20% 저감 연간 100억kWh, 0.4 백만 톤 절감 10억 달러, 대기환경과 스모그 현상 개선
자료: Global Cool Cities Alliance

주차장 및 도로의 클레이브먼트 시공효과
표면 온도 20°C 저감, 균열 및 변형 개선, 콘크리트 수명 연장 및 유지비 절감
자료: Clarkson Univ. TTRC 실험실영향센터

20~40°C 온도 저감

3~5°C 실내온도저감

30% 에너지 절감

30% CO₂ 배출 저감

2050 탄소중립! 국가 정책 지원

환경부

- 무공해차 보급
- 공공예차 전환시부담면제 확대
- 안전티비, 공용택배
- 열화콜택 사업유치·생원지원
- 특조 지원

국토부

- 건축, 녹지 도시 건축을 차열 성능 강화 지원
- 스마트시티 탄소중립 사업 확산 지원

국회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 개정안 추진
- 기후위기 적응 예산 지원
- 법제화 추진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 2050 탄소중립 이행 위해 쿨루프 차열페인트 방공과 추진!

한국 공약 사업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교육환경을 약속합니다!

- ✓ 학교 건물 환경 개선 선 지원
- ✓ 어린이보호구역 온도 저감
- ✓ 폭염 대응 실현의 온도 저감 솔루션
- ✓ 저예산 친환경 미래 인프라 확충
- ✓ 냉방·전력·유지비 3대 비용 절감

교육 환경 개선·에너지 절감·탄소중립 실현

쿨러닝 차열페인트로 더 시원한 도시, 더 안전한 보행, 더 깨끗한 미래를 만듭니다!

친환경 VOC, 중금속 유해물질 ZERO

미세플라스틱 빗받사 성능으로 플로팅 방지 및 수질 개선에 도움

반사성능·고내구 태양광 반사를 85%+ 내후성·내오염성 우수 기능 유지 성능 우수

국제인증·협약 미국 CRRC 인증 (부식, 반사를 최고 등급)

최초·혁신 인증 최초 도로형 CRCP 인증 (부식, 반사율, 혁신제품 지정)

높은 탄소저감 냉방에너지 30% 절감 탄소배출 30% 저감 (제품 기준 수치)

가치경쟁력 비용 절감 효과 탁월 시공이 간편하고 경제성 향상

전국 시공 및 기술문의 Tel: 070-7777-3918 Fax: (+82) 61-724-7236

신아이앤에스

전북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지역 중심 확대

주민참여예산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19억 규모 공모사업 발굴·심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4일 본청 2층 강당에서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교육지원청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의 회 및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등 17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워크숍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은 △전북교육 정책 이해 △지방교육재정 및 주민참여예산제 이해 △주민참여예산 운영 사항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내년부터 지



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주민참여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19억 원 규모의 '교육지원청 주민참여 공

모사업'을 신설했다.

이는 '지역화·다양화·특성화'라는 전북교육의 철학을 구현해 가

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별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심사하는 등 지역 중심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지원한다.

천호성 교육감은 "주민참여예산제는 교육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 교육재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며 "지역을 잘 아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 현장의 목소리가 더해질 때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전북교육청, 행정실장 역량강화 연수

사학기관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운영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2일 국립전주박물관 강당에서 도내 사립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행정(법인)실장 11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사학기관 행정(법인)실장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 연수는 사학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을 위해 행정

(법인)실장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청과 사립학교 간 정책 공유와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학기관의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투명한 회계 집행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을 되짚어 보고,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오전에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관리자가 갖춰야 할 실천적 리더십과 소통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신뢰받는 학교행정을 위한 행정(법인)실장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사학법인 운영과 관련한 주요 업무사항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교육청과 사학기관 간 업무 이해도를 높였다.

또, 오후에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과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이

해의 폭을 넓혔다.

천호성 교육감은 "사학기관 행정실장은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전문적인 업무 역량과 청렴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연수가 청렴을 바탕으로 책임있는 행정 역량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사학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협력해 공사립이 함께 성장하고 신뢰받는 전북교육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전북교육청·노동조합, 청렴 실천 한마음 한뜻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 등 11개 단체와 청렴 공동 실천 협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노동조합이 청렴 정책 추진과 실천에 손을 맞잡았다.

전북교육청은 4일 본청 5층 회의실에서 교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 노동조합과 '2026년 노·사 청렴 공동 실천 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교육청과 노동조합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청렴 가치를 공유하고, 공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천호성 교육감과 교원단체 4곳, 지방공무원 노동조합 4곳, 교육공무직 노동조합 3곳 등

11개 단체 대표가 참여해 청렴 공동 실천에 뜻을 모았다.

주요 협약 내용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 △상호 존중과 갑질 근절 △반부패 및 신고자 보호 △책임 있는 권한 행사 △청렴문화 확산 △노·사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등이다.

교육청과 노동조합은 이번 협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청렴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실천 과제를 함께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식에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과제와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천호성 교육감은 "노동조합은 구성원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중요한 소통 창구이자 정책의 협력 파트너"라며 "오늘의 협약이 서명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조 대표들도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신뢰받는 전북교육 실현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홍태 기자 kht@

전북교육청 '행복한 한끼, 함께 만드는 미래' 특별전

10월 8일까지 4개 분야 수상작 총 96점... 건강한 식생활 일깨우는 공간될 전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7일부터 10월 8일까지 '제8회 행복한 학교급식 공모전 시상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도교육청 본관과 별관 연결복도 공간에 전시되는 작품은 △그림일기 △포스터 △캠페인 사진 △이모티콘 등 4개 분야 수상작 총 96점이다.

작품에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시각으로 표현한 건강한 식생활과 생태환경, 감사와 배려 등 학교급식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학교급식이 단순한 한끼 식사를 넘어 건강한 식습관과 환경, 인성을 함께 배우는 교육활동임을 알려 나갈 계획이다.

또 이들 수상작은 작품집으로 제작돼 학교급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 바람직한 식생활 습관 및 올바른 건강관리 능력을 기르는 '영양·식생활교육 자료'로 활용된다.

본청에서의 전시가 끝나면 직속 기관과 학교의 신청을 받아 순회 전시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학교급식 공모전은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26일 진행했으며, 그림일기(초 1~3학년), 포스터(초 4~6학년/중고생), 캠페인 사진(유초중고생 및 교직원), 쇼트폼(초중고생 및 교직원), 이모티콘(초중고생 및 교직원) 등 6개 부문에서 총 801점이 접수됐다.

분야별 대상은 △그림일기 최승윤(전주문학초 2) △포스터 김하숨(이리서초 6)·이진(원광보건고 2) △캠페인 사진 조경수(군산중앙초 교사) △쇼트폼 김보민(전주온빛초 6) △이모티콘 김예령(전주중 3)이 차지했다.

임영근 문예제건강과장은 "학생들의 순수한 시선과 창의적인 표현이 학교급식의 소중한 가치를 더욱 빛나게 했다"며 "앞으로도 학교급식으로 건강한 식습관은 물론 환경을 생각하고 배려와 감사의 마음을 실천하는 급식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과정을 지속해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전북 상업계고 학생 13명 전국상업경진대회 입상

강호항공고, 전사전자원관리(ERP)와 창업동아리엑스포 부문 교육부장관상 수상

전북 상업계고 학생들이 전국상업경진대회에서 교육부장관상을 비롯해 금·은·동상을 수상하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광주 일원에서 열린 '제16회 전국상업경진대회'에서 13명이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강호항공고는 전사전자원관리(ERP)와 창업동아리엑스포 부문에서 각각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며 이번 대회 최고 영예를 안았다.

또 동아리콘테스트 금상, ERP·경제골든벨 은상, 금융실무 상상을 더해 총 6개 종목에서 입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주여자상업고는 경제골든벨에서 종목에서 금상을 수상했으며, 완산여자고는 호텔식음료서비스실무(조주)와 취업설계프레젠테이션에서 각각 은상을 수상했다.

글로벌학산고는 대회홍보크리에이터 종목에서 은상을, 군산여자상업고는 회계실무와 사무행정 종목에서, 원광보건고는 창업실무 종목에서 각각 동상을 수상했다.

천호성 교육감은 "전국대회에



에 대한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북교육청은 교육 현장 내 법적 분쟁과 권리구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문변호사 인력풀을 강화함으로써 일선 학교와 기관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법률 지원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홍태 기자 kht@

김홍태 기자 kht@

전북교육청, 고문변호사 3명 신규 위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31일 5층 접견실에서 고문변호사 3명을 신규 위촉했다.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남준희·성장현·이민호 변호사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겸비한 법조인

들이다.

위촉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2년간이다.

신규 위촉된 고문변호사들은 향후 교육청 주요정책 및 행정처분 관련 법률 자문, 소송·행정심판 등 분쟁 수행 지원 등 교육행정 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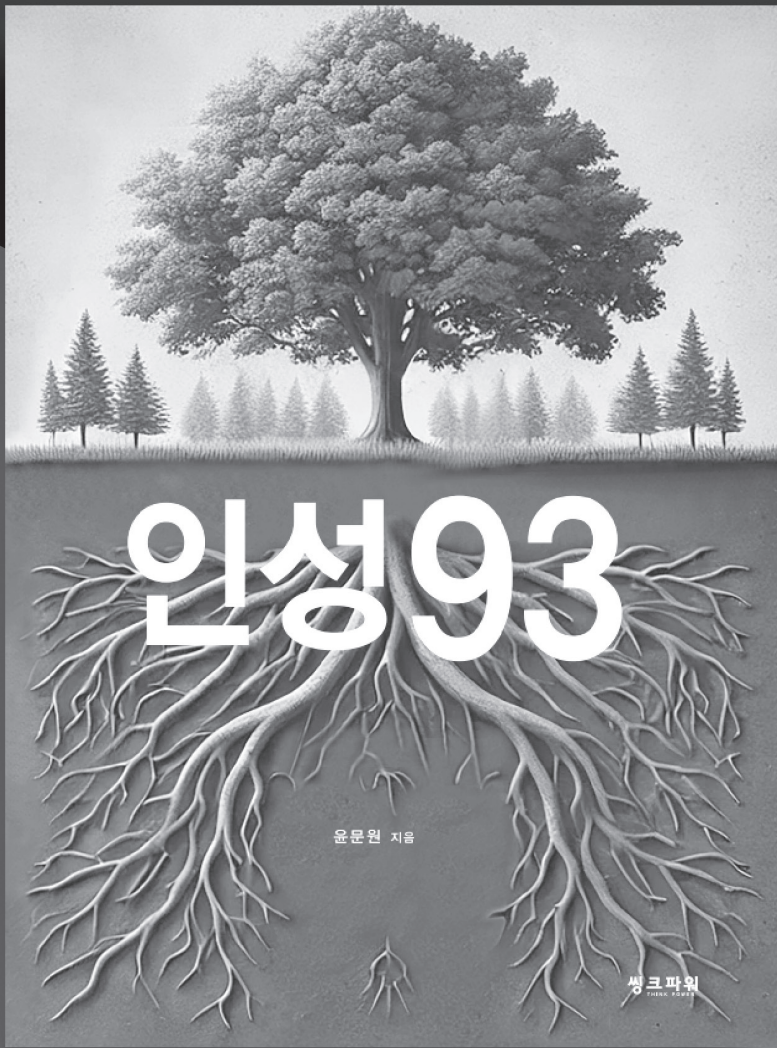
에 대한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북교육청은 교육 현장 내 법적 분쟁과 권리구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문변호사 인력풀을 강화함으로써 일선 학교와 기관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법률 지원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홍태 기자 kht@

93가지 인성 덕목을 담은 삶의 지침서

인성교재보급을 통한 체계적인 인성교육



저자 **윤 문 원**
인성교육전문가
중·고교과서 다수게재

출판사 : **쌤크파워** (440p) 정가 : **24,000원**
쿠방,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영풍문고 등 전국서점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가능

단체구입문의 : 010-7401-9855 유기성 본부장
(학교도서관및 공공기관 도서구입관련)

인성교육진흥법관련조항제11조 :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및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한다.

제15조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지원,인성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해야한다.

전 재 학 의 교 육 칼 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남길 비극적 유산

“교육 선진국들은 교부금을 줄이기는커녕 교사 1인당 학생 비율을 극단적으로 낮추고… 공교육의 질적 도약을 이루어냈다”

교육은 한 국가가 미래 세대와 체결하는 가장 엄숙하고도 신성한 사회적 계약이며, 재정은 그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는 최후의 물질적 담보라 할 것이다. 최근 재정 당국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산정 방식 개편 및 삭감 시도는 단지 예산 항목의 숫자를 조정하는 기술적·행정적 편의에 멈추지 않는다.

그것은 한 사회가 지켜온 가치관의 후퇴이자, 국가의 미래를 '비용'의 틀에 쏙혀 넣으려는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의 치명적 결구이다. 교육재정을 한 해의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단기적 지출 항목이나 시혜적 예산으로 치부하는 경제 논리가 마침내 국가백년지대계의 근간을 침식하는 것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삭감론자들이 내세우는 핵심 논리는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 교육 예산도 기계적으로 감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언뜻 들으면 합리적인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다.

그러나 이는 교육이라는 일종의 복잡계(Complex System)를 단지 '학생 1인당 투입 비용'이라는 조잡한 단순 산술로 환원하는 단견에 불과할 뿐이다.

교육 현장의 재정 구조는 단순 소비재 공급 체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학교 재정의 60% 이상은 교원 인건비, 학교 건물 및 시설 유지비, 기초 운영비 등 학생 수의 증감과 무관하게 지출되는 '고정성·경직성 경비'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 수가 30명에서 15명으로 반토막 난다 해도 교실의 전등을 절반만 켜거나, 교사의 임금을 반으로 줄이거나,

학교 건물의 난방 면적을 반으로 축소할 수는 없지 않은가?

오히려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될수록 소규모 학교의 비율은 높아지며, 이는 오히려 학생 1인당 행정·시설 운영의 단가를 상승시키는 재정적 구조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인구절벽이라는 시대적 위기 속에서 한 사람이 지니는 사회적·경제적 가치는 과거와 비할 수 없이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한다.

산업화 시대의 다품종 대량생산 시대의 집단적·공장형 교육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최첨단 디지털과 AI 시대에 개별 학생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맞춤형 개별화 교육'으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미래 생존의 문제라 할 수 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기초학력 보장,

AI 기반 디지털 학습 인프라 구축, 기초 과학 및 미래 기술 기반 습득, 특수교육과 다문화 교육, 고교학점제, 유보통합 등 고도화된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은 모두 집약적인 재정적 투입을 필수 전제로 요구한다.

이는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야말로 오히려 교육에 대한 단위당 투입을 비약적으로 늘려야 하는 결정적인 골든타임이라는 의미다.

역사적으로 국가의 흥망은 지식 자본과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의지와 정확히 궤를 같이했다. 변변한 자원 하나 없는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도약하게 된 유일한 동력은 사람에 대한 투자, 즉 교육이었다. 197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이후 지속되어 온 내국세 연동 구조는 정치적·경기적 외

풍으로부터 공교육의 보루를 지켜낸 핵심 재정 기틀이었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 역시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뒷받침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은 학령인구 변화와 무관하게 교육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인식하고 정부 지출 대비 교육 재정 비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예컨대 핀란드와 싱가포르 등 교육 선진국들은 저출생 위기 속에서 교부금을 줄이기는커녕 교사 1인당 학생 비율을 극단적으로 낮추고, 멘탈 헬스 및 사회·정서적 돌봄 프로그램을 학교 재정으로 흡수하여 공교육의 질적 도약을 이루어냈다.

이제 교육교부금의 삭감을 결정하거나 이를 정책적으로 주도·방조한 행정가와 정치인들은 단지 한 해의 예산안을 조율한 관료로 평가받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미래 교육을 거부하고 이 나라의 교육 시계를 정체, 나아가 후퇴시킨 주역으로 역사의 법정에 기록될 것이다. 역사는 단기적인 재정 효율성이라는 명목 뒤에 숨은 정책적 통찰의 부

재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스스로 교육의 사다리를 부수는 결정이 초래할 피해는 온전히 힘없는 미래 세대와 국가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귀결됨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는 이를 반드시 기억하고 냉엄한 평가를 남겨 잘못된 정책을 복원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 인곡(仁谷) 전재학

-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 前인천산곡남중학교 교장
- ◇ 前제물포고·인천세원고 교감
- ◇ [수능교과서 영어영역] [노스트라다무스] 공동저자
- ◇ [월간교육평론] [교육과사색] 전문위원 및 교육칼럼니스트

이수언의 고용정책 칼럼

취업이 끝이 아니라 성장의 시작이다

기업교육이 만드는 변화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목표로 삼는다. 하지만 취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한 번 취업했다고 평생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변화에 적응하며 끊임없이 역량을 키우는 사람이 경쟁력을 갖게 되고, 기업 역시 인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최근 산업현장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 확산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직무의 형태는 세분화되고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도 끊임없이 달라지고 있다. 이제 직업훈련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교육이 아니라 변화에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과정으로 발전하고 있다.

기업들은 채용보다 더 큰 고민을 이야기한다. 어렵게 채용한 인재가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빠르게 이탈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사람을 채용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일이다. 개인의 성장은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기업의 성장은 다시 지역경제의 성장으로 연결된다.

기업과 구직자를 만나며 느끼는 것은 교육은 취업 전보다 취업 후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업무를

배우고, 조직문화를 이해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질 때 개인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기업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우리는 다양한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역량강화교육을 운영하며 조직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

최근에는 AI 활용 교육과 디지털 업무혁신 교육을 확대하여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의 성과는 교육장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업무를 더 잘 수행하고, 동료와 협력하며,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 갈 때 비로소 교육은 가치를 갖는다. 사람의 성장은 기업의 경쟁력이 되고, 기업의 경쟁력은 다시 지역사회의 성장으로 이어진다.

앞으로의 HRD는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산업현장의 변화에 귀 기울이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함께 고민하며, 사람과 조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사람에 대한 투자는 가장 확실한 미래 투자로 이어질 것이다.

취업은 목표가 아니라 성장의 출발점이다. 사람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은 기업의 경쟁력을 만들고, 기업의 성장은 지역사회의 미래를 만든다. 사람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변화에 귀 기울이며 지속 가능한 HRD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직업훈련을 통해 실천하고자 하는 가치이다.

다음 회차에서는 사람과 기업이 직접 만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는 온·오프라인 채용박람회와 일자리 연계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 이수언

- ◇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MBA)
- ◇ (주)채움HRD 대표이사
- ◇ 고용·교육정책 및 HRD 분야 전문가
- ◇ 인천지방고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협의위원회
- ◇ 인천해양경찰서 정책지원위원회 위원
- ◇ 인천발달장애인훈련센터 전문가위원

김 홍 제 의 목 요 칼 럼

이타카로 가는 길

‘이것이 내가 살고 싶었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곳에 닿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평생 찾아헤매는 이타카일 것이다.

아내와 영화를 보았다. 예매율 1위를 달리는 ‘오디세이’였다. 172분의 상영시간이 지루하지 않았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서 오디세우스가 돌아가려 했던 곳은 이타카였다. 트로이 전쟁이 끝났지만 귀향은 또 하나의 지난한 투쟁이었다. 영화를 보고 난 후 ‘내가 가야 할 귀향은 어디인가’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젊은 날 우리는 멀리 가는 법부터 배웠다. 더 높은 곳에 오르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힘 없이 노를 움직였다. 어느 순간 무심한 일상에서 삶은 뜻밖의 질문을 푼단진다. 나는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인생의 길에서 우리는 이타카를 찾는다. 젊을 때는 부모가 정한 길, 학교가 정한 기준, 사회가 요구하는 성공의 기준을 따라간다. 그런데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얻고도 마음 한구석에 허전할 때가 있다. 그때 비로소 묻게 된다.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은 ‘남의 기준으로 살던 삶을 멈추고 자신의 기준을 회복하는 일’이다.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다시 묻는 것이다. 가

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긴다면 실제로 가족을 위한 시간을 내야 한다. 말로는 가족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하루 대부분을 돈과 경쟁에 바친다면 그것은 가치관이 아닌 희망 사항에 가까운 것이다.

결국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가치관을 말해준다. 시간은 삶에서 가장 정직한 화폐다.

오디세우스가 세이렌의 노래를 듣기 위해 자신을 돛대에 묶었던 장면도 의미 깊다. 그는 자신의 의지를 과신하지 않았다. 스스로에게 경계를 만들었다. 정말 지키고 싶은 것을 위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절제하는 힘. 그것이 성숙한 자유다.

남의 시계에서 내려와 자신의 시간으로 돌아오는 것. 세상의 박수보다 자신의 양심에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사랑해야 할 것을 다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길이다. 돌아가는 길이 길어도 괜찮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남들이 정해놓은 목적지에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 긴 항해 끝에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의 주인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남의 기대가 아니라 내 가치로 선택하는 것은 삶의 선택에

서 중요한 갈림길이다.

사람은 평생 어딘가를 향해 부지런히 가지만 정작 자신에게 돌아가는 길은 너무 늦게 발견한다.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의 주인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 것인지 결정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며, 마침내 내 삶의 중요한 시간을 내가 믿는 가치에 바치는 것이다.

오디세우스가 이타카로 돌아갔다는 것은 단순히 집으로 돌아갔다는 뜻이 아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를 다시 확인한다는 뜻에 가깝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싶은가? 영화 ‘오디세이’가 오래된 신화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건네는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이 내가 살고 싶었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곳에 닿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는 이타카일 것이다. 그 길은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서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 김홍제

- ◇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장

최 윤 용 의

100세 칼 럼

염증 제어를 넘어 관절 조직 보호로 - 류마티스 관절염을 마주하는 한의학의 통합적 시선

1. 면역계의 오작동이 이야기하는 전신 관절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 류마티스 관절염(Rheumatoid Arthritis, RA)은 단순한 노화성 관절 질환과 달리, 면역계가 자신의 관절 활막을 공격하여 만성 염증과 비가역적인 연골·골 파괴를 일으키는 전신성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유전적 감수성과 환경적 요인이 결합하여 자가항원(RF, ACPA 등)에 대한 면역 반응이 무너지면, T 세포와 B 세포, 대식세포가 활막으로 대거 침윤합니다. 침윤된 면역세포들은 종양괴사인자(TNF-alpha), 인터루킨-1베타(IL-1beta), 인터루킨-6(IL-6) 등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폭발적으로 분비합니다. 이로 인해 관절 활막이 종양처럼 비후해지는 ‘판누스(Pannus)’가 형성되고, 기질금속단백분해효소(MMPs)와 RANKL이 분비되면서 관절 연골과 연골하 골조직이 서서히 파괴되면서 극심한 통증 및 관절 변형을 동반하게 됩니다.

2. 표준 약물 치료의 한계와 ‘치료 반응 정체(ceiling effect)’의 딜레마 - 현재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는 메토트렉세이트(MTX)를 위시한 항류마티스제(csDMARDs), 생물학적 제제(bDMARDs), 표적 합성 제제(tsDMARDs) 및 글루코코르티코이드(스테로이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단일 염증 경로나 면역세포를 차단하는 현행 표준 약물 치료는 환자의 30~40%에서 불충분한 반응을 보이거나 약물 내성이 발생하는 치료 반응의 한계, 즉 ‘천장 효과(ceiling effect)’가 상당수 비율로 보고됩니다. 더욱이 장기적인 스테로이드 사용은 심혈관 질환, 골다공증, 감염 및 대사 이상 등의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하며, 약물을 중단하거나 감량할 때 질환이 다시 악화되는 반동 현상(flare)이 빈번합니다. 결국 현재 널리 활용되고 있는 단일 표적 억제제만으로는 복합적인 전신 면역 불균형을 온전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 현대 류마티스 치료가 추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3. 새롭게 밝혀지는 류마티스의 활막 미세환경의 세포 네트워크와 후성유전학·장-관절 축 기전 - 최근 분자생물학적 연구들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단일 세포의 이상이 아닌, ‘활막 미세환경(synovial microenvironment)’ 내 다양한 세포들의 비정상적인 상호작용 네트워크에 의해 유지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4.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다중 표적 대안: 한약과 침 치료의 현대 과학적 근거 - 이처럼 류마티스 관절염이 보이는 다차원적인 병리기전 조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표적과 경로를 동시에 조절하는 한의학적 복합 치료가 현대과학적 연구를 통해 고려해볼만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침 치료의 양방향 면역 항상성 회복:

침 치료는 미주신경-부신 축과 콜린성 항염증 경로를 활성화하여 전신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억제합니다. 특히 자가면역 붕괴의 핵심인 Th1/Th2 및 Th17/Treg 세포 간의 면역 불균형을 교정하고, 염증성 M1 대식세포를 조직 회복형 M2 대식세포로 전환(Polarization)시켜 관절 내 면역 반응을 회복시킵니다.

한약(EAHM)의 다중 표적 조절과 시너지 효과: 최근 발표된 대규모 임상 무작위 대조시험(RCT) 메타분석(186편 및 415편 대상) 결과, 한약 단독 요법 또는 한약-양약 병용 요법은 서양의학 단독 치료 대비 ACR 20/50/70 반응률을 대폭 향상시키고 관절 압통 및 종창 수, 염증 수치(ESR, CRP)를 유의미하게 낮추었으며, 부작용 발생률도 현저히 줄이는 것으로 보고하여 한약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했습니다.

분자생물학적 치료 기전: 류마티스 관

절염의 치료에 널리 활용되어온 한약 처방(계지작약지모탕, 독활기생탕 등)의 활성 성분(Paeoniflorin, Liquiritin, Triptolide 등)은 NF-kB, MAPK, JAK-STAT 및 PI3K-AKT 신호 전달 체계를 다각도로 차단하여 비정상적인 활막세포(FLS)의 증식과 침습을 억제하고 세포 사멸(Apoptosis)을 촉진합니다.

5. 관절 변형과 재발을 막는 일상 속 자가 관리법 - 류마티스 관절염의 장기적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의학적 치료와 더불어 면역계의 안정을 돕는 생활 습관 실천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장내미생물 균형 조절을 위한 항염증 식단:** 류마티스 관절염의 장기적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의학적 치료와 더불어 면역계의 안정을 돕는 생활 습관 실천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관절 가동 범위를 유지하는 규칙적 저항도 운동:** 염증 급성기에는 안정을 취하되, 만성기에는 수영, 실내 자전거, 부드러운 관절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 강직을 예방해야 합니다.
- **온열 요법 및 관절 보호:** 관절 부위를 따뜻하게 유지하여 국소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관절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는 반복 동작을 피해야 합니다.

- **스트레스 조절과 금연:** 흡연은 류마티스 자가항체(ACPA) 생성을 촉진하고 후성유전학적 변형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위험 요인이므로 반드시 금연해야 하며, 명상과 충분한 수면으로 신경-면역 균형을 다스려야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단순히 관절만의 염증이 아니라 전신 면역과 대사, 신경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만성 소모성 질환입니다. 면역계의 자생적 복원력을 높이고 다중 표적으로 관절 파괴를 차단하는 과학적 한의 치료와 적극적인 생활 관리를 병행하여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 최윤용

- ◇ 큰나무한의원 대표원장
- ◇ (주)오름생약 대표이사

국무총리상 표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 정부 조달청장 표창 산업융합선도 기업 표창 녹색인증 유공포상

APEC 2025 정상회의장 LED 전광판 구축 기업

실내 LED 전광판 | 옥외 LED 전광판 | LED 전자현수막 | 스탠드 LED 전광판

전국 초·중·고 구축 건수 1위 주식회사 케이시스

APEC 2025 정상회의장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옥외 LED 전광판

조달청 우수제품 조달청 혁신제품 성능인증 GS인증 1등급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인증 산업융합혁신제품 우수발명품

조달청 LED 전광판 계약·납품·구축 건수 3년 연속 1위

KSYS

‘최첨단 SMT라인 보유’
미세피치 전광판 생산

KSYS

국내 최초 안내전광판
‘조달청 우수·혁신제품’ 지정

공공기관·관공서·학교
‘전국 1,700건 이상 구축’

친환경
1등급
GOOD
ELECTRICITY

150종 이상의 빛나는
‘수상인증 특허’ 보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계약이행평가 최우수 등급’

NOVA STAR

글로벌 컨트롤러
‘노바스타 공식
전략적 기술 파트너’

국내 유일 미세피치 LED 전광판 제조 기업



SMT 라인



아웃도어 라인



어셈블리 라인



에이징룸

학교 설치 레퍼런스 | 나라장터종합쇼핑몰 등록제품



세일고등학교 2층 강당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대강당



온양한울중·고등학교 강당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시청각실



천안고등학교 시청각실



용인 대지초등학교 옥외



장성백암중학교 옥외



여의도고등학교 입구



망미초등학교 본관 입구



사송초등학교 본관 입구



삼성여자고등학교 강당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대강당



홍성 홍북초등학교 입구



대전대성여자중학교 실내 스탠드전광판



사직여자고등학교 LED배너

KSYS

대표전화

1600 - 6187

[전국 및 글로벌 지사 · 공장 · 물류]

부 산 |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356번길 17 더케이타워 1F~6F
서 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282 평촌 금강펜테리움 IT타워 411호
대 전 | 대전 유성구 복용동로 43 도안더리브스니처 749호
광 주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10 마루힐IBC지식산업센터 A동 1301-B호
제 주 | 제주 서문로 33

미 국 | 732 S 6TH ST, STE R, Las Vegas, NV 89101, USA

공 장 | 부산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9 (모라동) 백양스마트밸리 B1, 1F, 5F, 6F

부산 물류센터 | 부산 남구 문현로 13-1 케이시스 물류창고

서울 물류센터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평촌 금강펜테리움 IT타워 B110호